금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의 근원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외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신 영생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으로 누구의 제재나 간섭받지 않는 유아독존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축복자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62호 2013년 12월 7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하나님 아버지...본질적 속성 잘 전달

CT, 성포용적 신학자들의 하나님 부성 희석 훼손에 사이먼 챈 반박 보도

지난 40년간 하나님을 지칭하는 전통적 용어는 줄곧 비난을 받아왔다. 여성주의 신학자들은 전통적 용어 대신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남성적인 단어들, 특히 아버지 같은 단어를 신학 용어에서 빼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 또한 교회가 좀 더 포용적이 되려면 남성 중심적 언어를 남성과 여성 모두를 배려하는 언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 특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표현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특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의 밑바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용어들은 단지 하나님의 인간적 특성을 묘사하는 것이며, 이는 특정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남성적 이미지는 고대 부권제 사회를 반영한다. 비평가들은 성경의 종교가 여성을 해치거나 지배하는 신념과 제도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했던 가부장적 가치를 흡수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신학이 여성의 경험에 기초해 여성에게도 설득력 있는 종교로 재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싱가폴 트리니티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인 사이먼 챈(Simon Chan)의 기고문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Why We Call God 'Father': Christians have good reasons to resist gender-neutral alternatives)를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 포용적(gender-inclusive) 언어는 수십 년간 주류 개신교와 자유주의 가톨릭의 주요 관심사였다. 일부 복음주의자들도 이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성경과 기독교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남성적 언어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성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자주 그려진다(사 66:12-13, 호11장).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어머니로는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경 기자들이 속한 당시 문화와 비교해볼 때 이는 독특한 현상이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신 숭배 문화가 일반적이었고, 여신 숭배 문화가 아니라도 최소한 남성 신을 보완하는 역할로 여신이 존재했다. 가나안의 아세라, 이집트의 이시스, 바빌론의 티아마트가 그 예다. 하나님을 남성으로 묘사하는 문화가 가부장제를 반영한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여신 숭배는 모권제 사회를 반영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여성이 우월한 위치에 있거나 최소한 남성과 평등한 사회 말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도 여신을 숭배하는 많은 사회가 여성을 억압한다. 한 예로 힌두교의 여신 칼리를 숭배하는 사회를 보면 여성에 대한 대우가 결코 낫지 않다. 심지어 칼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렇다.

여성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포용성을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일수 밖에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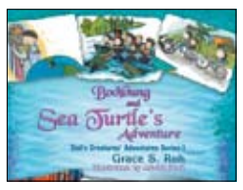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본성에 거스르는 신의 개념에 굴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대로 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유독 우상숭배를 맹비난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성(fatherhood)이라는 이스라엘의 사상은 고대 세계의 일반적 경향에 반하는 것이었다.

〈2면으로 계속〉

2면 호수 위 거품...아래에 뭔가 있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5면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16면 주일학교 영어교재 펴낸
홍그레이스 선교사

지구촌 무슬림 인구 2030년엔 22억

릴리전투데이, 짐 데니슨 박사의 분석 보도

퓨리서치센터의 연구프로젝트인 퓨(PEW)포럼은 지난 1월 "세계 무슬림 인구의 미래" 보고서에서 2010년 현재 전세계 무슬림이 16억1931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세계인구(69억명)의 23%다. 같은 달 미국해외선교연구센터(OMSC)는 세계 기독교 인구가 22억9000만 명(가톨릭 11억5000만 명, 기독교 3억6900만 명, 독립교회 4억190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불교 인구는 기관·단체에 따라 추정치가 많이 다른데, 5억-15억명 규모다.

따라서 2030년이면 무슬림이 세계 인구의 4분의1 이상(26.4%)을 차지할 것으로 퓨포럼은 예측했다. 주요 종교 가운데 성장세가 가장 가파르다. 그러나 무슬림 인구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은 이슬람으로의 개종이기보다는 북미나 유럽 전역에서의 무슬림 이민자와 이로 인한 무슬림 가정 자녀들의 증가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인구 26.4% 차지...현재 기독교는 22억9천만
개종자 증가 아닌 이민자, 무슬림자녀 증가 원인

현재 약 16억에 이르는 세계 무슬림 인구가 앞으로 20년 동안 지금보다 35% 증가해 2030년에는 22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교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Denison Forum on Truth and Culture)의 창립자인 데니슨(Jim Denison) 박사는 서구에서 무슬림이 늘어나는 이유가 개종자의 증가라기보다는 무슬림 이민자와 무슬림 가정의 자녀들의 증가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자는 매년 2만 명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의 한 대형교회의 신도들보다 작은 규모로 전체 무슬림 공동체 증가율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유럽의 무슬림 이민 가정의 출산율은 비무슬림 가정의 3배에 이른다. 이렇게 서구에서의 무슬림 증가는 대부분이 무슬림 이주민 증가와 무슬림 가정의 높은 출산율에 기인한 것이지, 이슬람의 교리가 주요한 이유는 아니라고 데니슨 박사는 분석했다.

2010년 개정된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는 2010년 세계 전체 인구가 69억8천만 명이며 연 증가율이 1.2%인데 반해, 세계 무슬림 인구의 연 증가율은 1.9%이고, 세계 전체 무슬림은 15억8,176만 명(2010년)으로 세계 제2위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세계 제1위의 종교로 신도의 수는 22 2,995만 명(2010년), 연 증가율은 1.2%라고 소개했다. 또한 세계기도정보는 북미 대륙의 무슬림 비율이 1.75%, 숫자는 616만 명이고, 유럽(러시아 포함)의 무슬림 비율은 6.07%, 무슬림 인구는 4,438만 명이라고 기록했다.

반면 미국의 선교 학술지인 IBMR(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은 2013년 1월호에서 2013년 세계 전체 인구가 71억3,001만 명이며, 연 증가율은 1.18%이고, 2013년 기독교인 인구는 23억5,452만 명, 연 증가율은 1.32%, 무슬림 인구는 16억3,531만 명이며, 연 증가율은 1.84%라고 발표했다. IBMR의 통계에 의하면 연 증가율로 볼 때 세계 10대 종교 중 이슬람이 가장 빠른 속도(1.84%)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독교는 세계 인구 증가율인 1.18%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1.32%)이다.

2013년 아주사의 밤

샬롬! 2013 아주사의 밤이 열리게 됩니다. APU 동문 여러분 모두 오셔서 2013 년말 뜻깊은 시간 나누길 바랍니다.
그럼 아주사의 밤에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APU 한인동문회 회장 최장식 목사 차기회장 곽경동 목사 수석부회장 정중한 목사 외 한인 동문일동

▲일시: 12월9일(월) 오후6시
▲장소: APU East Campus UTCC Hall
(901 E. Alosta Ave., Azusa, CA 91702)
▲문의: 818-331-5478

설교: 신원규 목사
- 삼성장로교회 담임,
- OC교협 증경회장,
- 복음주의장로교협의회 증경총회장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APU Alumni Korean Chapter

원로칼럼

예'와 '아니오'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마5:37).

며칠 전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위의 구절에 시선이 꽂혔다. 한참 동안 뗄 수가 없었다.

한국 근대 정치사의 비극은 예와 아니오의 무분별과 남발에서 비롯되었다. 절대 안 한다던 약속이 하룻밤 사이에 표변하는가 하면, 절대로 하겠다던 공약이 허위와 기만과 날조로 품새를 바꿈질했던 전력이 우리네 정치마당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설마'라고 하며 코웃음 칠 뿐 진한 감동 없이 숱한 날들을 보내곤 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가룟 유다를 앞세운 악당들이 들이닥쳤다. 이유는 예수를 잡기 위해서였다. 힘깨나 썼을 장정들로 구성된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상황에서 나섰다간 어느 주먹이 날아들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때 예수가 나섰다.

"너희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예수다...."

예수라고 목숨이 둘이나 셋일 수 없다. 그도 피곤했고, 배고팠고, 십자가의 고통이 쓰고 아팠다. 그런데 예수는 "내가 예수다"라고 나섰던 것이다.

정치가들은 말한다. "정치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정치는 정직성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 그 더러운 정치윤리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속상했고, 억울했고, 가슴 저린 세월을 보내야 했다.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지르는 닭도, 아무 때나 짖어대는 개도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것들은 늙었거나 병들었기 때문이다. 하물며 사람이 시도 때도 가늠하지 못한다든지, 아무데서나 재잘거린다면 그들이 어떻게 사회 적응이 가능할 것이며 사람 구실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겠다는 것은 하는 사람, 안 하겠다는 것은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연유를 밝히고 책임을 떠맡는 사람이 그립다.

예와 아니오를 바로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압력 때문이다. 저항하기 어려운 어떤 집단이나 힘의 압력 때문에 예와 아니오를 얼버무리거나 뒤섞어 버린다. 둘째는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 한 마디 때문에 손해가 된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타산 때문에 예도 못하고, 아니오도 못한다. 셋째는 기회주의적 발상 때문이다. 윤리나 양심은 유보한 채 입신양명이나 출세의 기회 포착을 위해서라면 물도 불도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예도 아니오도 기대할 수 없다. 넷째는 습관성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껏 크고 작은 일들을 한결같이 그렇게 대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경은 서원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워도 갚으라고 명한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맹세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인장제도를 사용하는 나라 치고 선진국은 없다. 선진국가일수록 서명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신용카드도, 운전면허도, 모든 크고 작은 계약서도, 신용장도 서명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우리네 사정은 도장을 찍어도 수없이 찍어댄다. 더 많은 도장을 찍어야 마음이 놓이고 직성이 풀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안전 장치는 아니다. 예라고 말한 것을 예로 지키고, 아니오라고 말한 것을 아니오로 지키는 사회, 도장이 없고, 서명이 없고, 녹음테이프가 없어도 실현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턱도 없는 거짓말이 목적 쟁취의 도구로 쓰여질 때,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누구도 그를 향해 허리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도산 안창호는 대성학교 학생들에게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은 말아라"고 했다. 그리고 도산은 거짓말한 학생을 정학처분했다.

호수 위 거품...아래에 뭔가 있다!

스몰그룹닷컴, WBT 켄 윌리엄스의 '대인관계기술계발' 중 마음 읽기 소개

교회나 선교단체 등의 사역자들이 가장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것이다. 한 신앙을 가진 형제자매지만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스트레스나 갈등은 일반 직장에서 겪게 되는 것보다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사역자로서 본이 돼야 한다는 부담감과 과중한 업무, 여기에 대인관계에서 오는 압박까지 더해지면 이제 남은 것은 탈진밖에 없다.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역지에서의 각종 난관들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다.

켄 윌리엄스(Dr. Ken Williams)는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WBT)에서 사역하는 국제 훈련 컨설턴트로서, 그는 교회나 단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만 원만한 대인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침묵 · 질문 · 자기노출 · 관찰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상대방 심적 변화신호에 적절 반응...깊은 영적 교류 체험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잠20:5).

잔잔한 호수 위에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호수 물밑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증거이다. 정확하게 무엇인지 금방 알아내기는 쉽지 않으나, 분명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는 사람들의 의식과도 비슷하다. 사람들은 뭔가 중대한 일을 만나면 남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한 반응을 나타낸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품이 일어나듯이….

이런 호수 표면의 거품과도 같은 변화가 보일 때, 그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여준다면 그의 개인적인 기쁨이나 상처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억지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당을 열어놓을 때 가능해진다.

소그룹 시간에 누군가가 특정한 몸짓이나 말을 반복하거나, 표정이 달라지거나, 뜬금없는 감정표현을 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못할 때, 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특정 주제로부터 말을 돌리려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 마음의 호수 아래 무엇인가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품과도 같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인도자는 그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만 한다.

이렇게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숙달돼가는 것이지만, 어떤 종류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를 미리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심적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첫째 방법은 침묵이다. 원래 말을 잘하고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침묵함으로써 그 사람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물론 그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방법은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다. 단, 질문을 할 때에는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의문사(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사용하는 열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할 때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 하고 있음을 같이 표현해주는 것이 좋다.

셋째 방법은 자기 노출, 즉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형제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몰랐군요. 좀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나라면 절대 그렇게 못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인 있는데 정말 기뻤습니다(힘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단, 너무 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야기의 초점이 그 사람에게서 내게로 이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방법은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상태를 예측해보는 것이며, 열린 질문이나 자기 노출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일을 하셨다면 완전히 지쳤겠는데요?" "정말 흥분되고 신이 났겠군요! 좀더 이야기해 주세요." "모두들 힘들었겠어요. 다들 어떻게 견뎌냈죠?"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이해했음을 보여주며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그 사람의 말을 끊는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상대방의 심적 변화에 대한 신호에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소그룹의 멤버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영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1면에서 계속〉

따라서 그 사상은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아래 있었던 오랜 역사의 결과였을 것이다. 교회는 이스라엘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기독교의 독특한 신론을 발전시켰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부성은 두 가지 분명한 개념을 전달한다. 첫째, 그것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를 가리킨다. 이는 사도신경 서두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바울의 저작들에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흔히 등장한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는 훗날 교회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심으로써 예수님은 삼위일체 교리의 시작점인 성부와 성자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를 통해 그분이 영원부터 성부와 누리셨던 사랑의 관계는 오늘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이들에게로 이어진다(롬8:15).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이며, 상호 간의 사랑과 존경이 그 특징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4년 봄학기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본교소개
1.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 입니다.
2.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 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3.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아버지'는 신적 계시...삼위일체 정체성 위기

CT, 성포용적 신학자들의 하나님 부성 희석 훼손에 사이먼 챈 반박 보도

〈2면에서 계속〉

'아버지'라는 용어는 이 같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많은 여성주의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남성적 은유 자체가 여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성경의 용법과 잘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남성적 이미지가 오로지 '남성적' 속성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4:5-7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면서 멀어진 이스라엘을 향해 '큰 긍휼'(전형적인 '여성의' 속성)로 다시 돌아오기를 요청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사49:13 참고). 아버지라는 용어가 배제하고 있는 것은 여성적 속성이 아니라, 수많은 고대 종교들에 나타나는 신의 이미지, 즉 냉담하고 비인격적 존재라는 개념이다.

둘째, 아버지라는 은유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타낸다(사64:8, 말2:10).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엡3:15).

아버지라는 한 단어 안에는 상반된 속성, 즉 피조물을 사랑하는 동시에 다스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함께 담겨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문화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자신과 분리된 것으로 지으셨다고 보는 반면, 근동 사회에서는 어머니라는 은유로 세상을 낳은(세상은 신의 본체의 연장이 된다) 모신(mother-goddess)을 표현한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이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개념을 함축함으로써 기독교의 창조 교리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올바른 창조 교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부성이 피조물에 대한 통치와 친밀하고 깊은 사랑을 암시한다면, 성 중립적인 용어는 그러한 개념을 전달할 수 없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 이야기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 이야기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다. 그것은 일반 원칙이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예화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일단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기독교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실제로 형성하는 것이다.

신학자 조지 린드벡의 말을 달리 표현해보면,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이야기 속으로 흡수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정체성이 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부 하나님,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이야기를 짧게 줄인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루터란 신학자 로버트 젠슨의 말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기독교적 경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할 때 진짜 기독교적인 것이 된다. 다른 수많은 수식어('긍휼한', '자비로운', '사랑하는', '전능한' 등)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기독교적 계시의 하나님을 다른 일신교의 신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한다면, 기독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변질된다.

진보적인 생각을 지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역설적이게도 무슬림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알라 논쟁에서 불거진 일이다. 일부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레

이어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알라로 표기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진한 무슬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우려는 신학적으로 타당하다. 알라는 신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호칭이지만(아라비아어의 El과 같은 것) 시간이 흐르면서 무슬림들 사이에서 고유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이 호칭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알라와는 별개로 나름의 신학적 가치를 지닌다. '알라'라는 호칭이 유대교 및 기독교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슬람교와 독특하게 결부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을 칭하는 고유의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교회는 전례 중에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다름 아닌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형용사를 붙인다 해도 일반적인 이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무슬림의 정체성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다. 유대인이나 무슬림 역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며 거룩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형용사는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합쳐도 삼위일체의 이름이 되지는 못한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고 특별한 연관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교회뿐이다. 하나님의 신적 부성이 약화될 때, 교회는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버지라는 말을 포기하는 것은 기독교 이야기의 본질에 커다란 구멍을 남기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말을 포기한다면 신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라고 가르치는 많은 교회의 예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교회파(high-church) 전통을 따르는 예배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특정한 신조를 낭송하거나 함께 읽는 순서가 포함된다. 하지만 부성에 관한 표현이 사라진다면 이런 공적 낭송을 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역설적인 용어를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호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테면 "전능하신 아버지"와 같은 이름으로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신학자 고든 래스롭은 이런 병렬이 하나님의 신비를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으로, 거룩하면서도 친밀한 것으로 보여준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두 가지 속성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의 전례에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병렬적 표현이 사라질수록 예배는 신성한 신비의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먼 곳에 계시다거나, 아니면 너무 친절하시다고 느끼게 된다.

성 차별적 언어를 없애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하나님을 칭할 때 남성대명사 사용을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거나 '그, 그분 자신의, 그분의'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 자신의'라는 어색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보수 기독교도들도 이러한 혁신에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칭대명사 사용을 제한한다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경시하게 될 것이다.

아직 '기독교적' 담론이 지배적인 서구사회에서 이런 주장은 그나마 쉽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언급할 때 서구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떠올린다. 하지만 "많은 신과 많은 주"(고전8:5)가 있고 비인격적인 궁극적 실재를 믿는 아시아에서는 인격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한다. 미미한 도의심이 다칠까 두려워 그런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불행한 일일 뿐이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특히 기독교 이야기가 재연되는 전례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버지는 문화적 제약을 받는 용어가 아니라 신적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타당한 이름이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의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여준다. 교회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삼위일체의 정체성은 위기에 처해 있다. 포용적 언어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얻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신학적 대가를 요구한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믿음 안에서 생각하며 구원을 누리라

(시 105편)

시편 105편을 통해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어려움, 고통, 억울함 등을 어떻게 생각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를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생애의 한 부분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으로 인하여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지나가는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의 삶은 죽을 때까지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소망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형들에게 요셉을 팔도록 강요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형들의 죄성에 의해 요셉을 노예로 파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17절의 '보내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역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롯 유다를 시켜 예수님을 팔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마귀가 한 짓이었으나 어떠한 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을 때 사실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위를 걷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베드로가 물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두려움이 엄습하니 그냥 물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은 길이 막혀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이 그 생각은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이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은 두려움과 불안과 사망의 음침한 함정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삶에서 항상 나타나는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누리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지만 가는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만나면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이 없이 생각한 습관 따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나의 생각이 전적 하나님을 믿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환경만 보고 그대로 나타나는 생각을 따르지 말고 그 생각이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을 잘 살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생각을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에서 일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생각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나의 입술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명에 충실합시다. 나의 생각을 잘 살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초청합니다

(고)김충일 목사, (고)김옥란 사모의 장녀 엘리자베스양이
임영애 여사의 장남 마이클군과 귀한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일일이 초청장을 올려야 마땅한 줄 아오나 지면을 통해 초청하오니
이점 해량하여 주시고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ITH JOYFUL HEARTS WE ASK YOU TO BE PRESENT AT THE CEREMONY UNITING
ON SATURDAY, THE TWENTY-FIRST OF DECEMBER
TWO THOUSAND AND THIRTEEN
AT FOUR O'CLOCK IN THE AFTERNOON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HOLLYWOOD

임영애 여사 의 장남 마이클

(故)김충일 목사
(故)김옥란 사모 의 장녀 엘리자베스

주례: 김현인 목사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
기도: 박신욱 목사 (미주복음방송 사장)
축도: 황은영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전 총회장)

일시: 2013년 12월 21일(토) 오후 4시
장소: First Presbyterian Church
1760 N. Gower St. Los Angeles CA 90028

*예식후 피로연이 있겠습니다.

청첩인: 이완구 이진도 김중원 김성훈 김언석 이동창 정문하 장로
연락처: Solid Rock Church (남가주든든한교회) / Michel & Elizabeth Kim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213)663-4340

투/고/칼/럼

원중권 목사
(아르헨티나 소망교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방법

폴 히버트 박사는 "선교와 문화 인류학"이란 책에서 신임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처음 갔을 때 경험하는 문화 차이, 그로 인한 문화 충격 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잘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 문제는 선교사의 문제도 되지만 타국에 이민 와서 살려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럼을 통해 이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문화 충격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적응하여 이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 충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새로운 곳에 가서 시작하려고 할 때 문화 충격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도 하루 이틀 동안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화 차이를 느끼고, 그 다름을 틀린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당황해 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먼저 언어 충격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의 변화, 즉 그동안 나에게 습관 되었던 것들과 다른 차이를 겪게 됩니다. 또 관계의 변화, 이해력 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가치관의 혼돈을 겪게 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충격 가운데 자신의 문화의 우월적 감정을 가지고 현지 문화에서 겪은 이야기를 무용담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 충격으로 인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먼저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거의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고, 스트레스가 있기에 약간의 긴장과 일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민자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이 나타납니다. 가령 만성두통, 위궤양, 허리 통증, 고혈압, 심장마비, 만성피로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 생활에서의 질병은 염려를 더할 뿐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보통 우울증과 실패감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든지(교회를 포함)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위장의 가면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문화 충격을 최소한 하는 방법은 염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를 배우려는 자세보다는 내 문화와 비교해 보고, 그것을 고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지 사회의 활동에 많이 참여함으로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많이 배워야 합니다. 또 현지인들과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이민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건전한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쉽게 빠져 인생과 가정을 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이민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초/장

손한권 목사
(뉴욕 예사랑교회)

주여 우리를 100배로 부흥케 하소서

(마태복음 13장 1-8절)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특징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정체성이란 하나의 개체가 남들과 다른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면서 혼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소리와 그 모습이 전부 싱글(Single)로 보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미혼자인지를 보시겠답니다. 여자 성가대원이 남편과 손을 잡고 나가면 연애하는 사이로 아시고 그 옆에 애기가 따라 나가면 결혼한 부부로 인정하신답니다.

성개대원들이 전부 장발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를 모르겠어요! 요즈음은 남자도 화장을 하기 때문에 도무지 남자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앞면에서 보고 감정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정체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깎아주면 남자로, 화장을 조금만 약하게 하면 남자인줄 알겠지요.

교회의 문제점도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 아군인가 적군인가 알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성도인자 마귀의 새끼인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마샬로 알려진 특수한 형태의 이야기체로 천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깨닫고 100배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돌짝밭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이 100배로 부흥케 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각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그 씨는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둘째, 돌밭에 떨어졌으나 햇빛으로 인하여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환난을 당할 경우입니다. 셋째, 가시밭에 떨어졌으나 가시가 기운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재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잘못을 하고 유혹을 받지만 삶에 결실을 맺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은혜로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 마귀는 성령으로 이겨야 합니다. 둘째, 환란은 인내로 이겨야 합니다. 셋째, 재물의 유혹은 감사로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2. 겨자씨 하나가 100배로 부흥케 합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천국의 사역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천을 이루고 천이 만을 이룹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1분만 기도한다고 해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분 기도를 소중히 생각하면 1분이 10분, 30분, 100분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1분 기도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3. 밭에 숨겨진 보화가 100배로 부흥케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어느 밭에서 석유를 발견하였다고 합시다. 그는 분명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석유를 뽑아내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석유보다 값진 보석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이 그저 한 좋은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생애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값비싼 보석이나 진주보다도 '예수가 좋다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4. 그물과 같이 모든 고기를 모아서 100배로 부흥케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 물은 좋은 고기나 나쁜 고기나 모두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못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들은 한 그물로 같이 잡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저는 나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고기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좋은 고기인가 나쁜 고기인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고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5. 날마다 좋은 아침 새로운 양식이 100배로 부흥케 합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곡간입니다. 그 곡간에는 아주 좋은 양식이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 큰 집의 주인이 되어서 곡간에서 날마다 좋은 아침, 새로운 양식을 꺼내서 먹고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0-14(2월 10일-14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Feb 17-21 (2월 17일-21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Orthopaedic Capital Cen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6-Feb 28 (1월 6일-2월 28일)

-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Bangkok, Thailand
- March 31-April 4 (3월 31일 -4월 4일)
IM 8300 Islam(이슬람)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Korea
- April 7-11(4월 7일 - 11일)
DI8220 Clu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iberius Rata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최근 천주교 박창신 원로신부가 시국미사에서 '연평도사건, NLL 등'의 시국에 관련된 발언으로 인해서 한국 전체가 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란이 다시 휩싸였다. 그동안 몇 년 들끓었다가 밑바닥에 가라앉은 수많은 질문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지 않는가? 정치는 썩었는데 교회가 세상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어떻게 정치에 무관할 수 있는가? 질문들은 끝없는 꼬리를 문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다. 과연 어떻게 교회가 정치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가? 장신대 김명용 총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교회는 권력 지향적이거나 정치 중립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불의를 비판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직자들은 현안 전문가 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교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의 동향은 어떠한가? 미국과 영국은 정치와 종교를 구분했다. 하지만 유럽과 남미의 백여개 나라에서는 기독교 정당들이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추구한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동안 정치참여에 소극적이었던 보수교회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지난 17대 총선 때에 소위 기독당이란 이름으로 정당정치의 정면에 출현하는 큰 실험을 했다. 기독교인들이 결집을 하면 원내 제1당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2%도 얻지 못해서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수모도 겪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정치는 더럽다라고 생각한다. 사실 정치에는 모략과 중상이 가득하다.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뇌물과 이권이 오고 간다. 정치에는 타협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연히 세속정치에 관심이 적다.

누가 보아도 정치는 타락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사람은 정치적인 존재이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부여된 정치적 능력과 본성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도 주셨다. 물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사실 정치의 타락을 가지고 온 것은 죄로 인한 인간성의 타락이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동료인간을 지배하려는 권력에의 야욕으로 정치를 변질시켰다. 가인의 후예들은 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폭력정치를 시작했다. 타락이후 정치는 인류에게 분열과 대립, 그리고 전쟁과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교회는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체로 정치참여에 적극적이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하던 정치체제는 신정이었다. 신정시대는 신앙 지도자가 정치의 전면에 있었다. 왕정시대에도 선지자들이 관여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파는 로마의 협력함으로 정치와 종교의 기득권을 누렸다. 바리새파는 여전히 종교 기득권에 참여 했고, 반대로 에세네파는 종교적 타락에서 도피하려 했다. 열심파는 로마의 정치 기득권에 대항하는 혁명운동을 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이런 사조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이 있었다.

루터나 칼빈도 국가 지도자가 잘못할 때 기독교인들이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신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기독교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독교가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에게는 경건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중심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등은 모두 타락한 정치세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신앙인들이었다.

우리나라는 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가 분리되어 있다. 한국은 피선교국이었다. 일제시대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일제와 협약을 맺었다. 일제가 선교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선교사들은 일제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선교사들은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다. 당시 구국인사들과 청년들은 일제에 대항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했다.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다. 일제는 3.1.운동의 배후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했다. 교회를 불태우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다. 신사참배도 강요되었다. 기독교가 신사참배에 반대한 것은 당연하다. 공산당의 지배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후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진보진영에서는 정치와 사회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보수진영에서는 사회구원을 비판하며 개인영혼 구원에 힘썼다.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를 내던지 내지 않던지 간에 정치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정치를 통한 세상 구원을 믿지 않는다.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사회의 변혁이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모든 크리스천들은 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써야 한다. 여기서 참여는 가정을 다스리는 일로부터 정치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동체의 참여를 의미한다.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참여하는가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다. 강승삼 교수는 "한국 기독교의 정치참여 어디까지?" 글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집단적 정치참여는 그 주체와 책임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하한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근의 현대사만 보아도 신앙인들이 정치참여와 비참여, 혹은 정권의 지지나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복음의 진보를 저해했던 경험이 많았다.

기억할 일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할 영역이 있다. 구약에 나타난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사무엘과 사울왕 사이에도 뚜렷이 나타난다. 삼13장을 보면 왕의 직무와 선지자의 역할은 뚜렷이 구분되었다는 힌트를 얻는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직접 제사를 드린다. 사무엘은 "왕이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책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질책한다. 왕은 정치적 영역에서 사명이 부여되었고, 제사 드리는 일이나 영적인 영역은 왕이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가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성기문 교수는 한국개혁신학교 학술심포지엄에서 "구약성경은 한국정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나?"라는 주제 속에서 신정 정치 내에서 왕의 사명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규정했다. 구약의 신정정치도 인간대리자를 통해서 수행되었다. 왕에게 요구된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 결과 사회에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진다. 왕정시대 지도자들의 권력의 오용과 불법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의 비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을 받아야 했다.

성경은 정치적 권위가 백성들로 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신다. 바울은 롬13장에서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한다. F.F. Bruce의 로마서강해에서 바울은 국가권력의 기초를 자연법에서 기초를 찾지 않고, 구약의 사상처럼 하나님에게서 그 근거를 찾는다고 했다. 비록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세속정부도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수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막12장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원론적인 지침을 주신다. 예수는 동전을 통해서 황제와 하나님의 대립이 일어날 때,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할 때에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정치와 신앙의 갈등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국가적인 권력보다 더 우선이다.

예수님은 가장 정치적인 시대에 사셨다. 그러나 정치적인 참여를 위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말씀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데모를 주동하지도 선동하지 않으셨다. 그러한 방법들은 불법적인 종교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행한 죄악이었다. 예수님은 현상적인 정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메시아 왕국은 인간적인 정치의 권모술수가 필요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16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사업하는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과거에 크게 축복하셔서 사업도 크게 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교만하여 방탕하게 살자 하나님이 저를 치셨습니다. 다시 과거의 복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경말씀과 실례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성에서 김 장로

A: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메뚜기와 한재로 재앙을 내리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 폐해로 인해 하나님께 드릴 소제의 제물마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엘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회개하면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 즉 성령의 비를 내릴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왜 잘되다가 복을 잃어버리느냐? 이것은 여호수아의 아이 성 전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여 교만하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이 결정적인 죄가 되어 아이 성 전투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실례를 들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장로님도 재기하십시오.

미국 프로야구에는 "사이영 상"이란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보인 피처에게 주는 한국으로 말하면 "최우수 투수상"과 같은 것입니다. 최고 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셔

스에게 주는 최고로 명예로운 이 상을 받는 사람은 그 해 스포츠 계의 톱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의 이면에는 묘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사이영 상을 받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다음해 시즌에는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2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사이영 상을 받은 투수의 마음이 천하를 얻은 듯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훈련과 개발을 게을리 하게 됩니다. 갖가지 행사와 광고 촬영 등으로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둘째, 오프시즌 동안 다른 모든 팀이 사이영상 수상투수를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메이저리그 감독과 타자들이 그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즌이 되면 그 최고투수는 집중 공격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성공 뒤에 뜻하지 않은 실패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힐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최고급 특급호텔에 속합니다. 그 힐튼 호텔을 창업한 코나드 힐튼은 32세의 젊은 나이에 거대한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업한 호텔사업이 연쇄부도를 맞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자신을 쫓아 다녀 견딜 수 없어 그는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독약을 마시려는 순간, 언젠가 들었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코나드야, 네가 장성하면 부모 곁을 떠나게 될 것이고 네 형제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밤새도록 회개의 눈물로 기도한 후 어제와는 다른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채권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어제 밤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고 부채를 갚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간절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채권자가 나타나서 "코나드,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재기하겠다니 내가 어찌 가만있을 수 있겠소? 내가 자금을 좀 밀어주겠소"라고 해서 달라스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텔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924년 가장 탁월한 서비스를 목표로 호텔사업을 다시 시작해 재기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4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4년 5월 16일(금) ~ 19일(월)
2) 고시 장소: Toronto, Canad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2) 제출고시 :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누가복음 16:19-26
(2) 신약 주해 - 레위기 21:1-9
(3) 논문 제목 – 표절과 목회자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논하시오
(4) 설교 분문 – ① 신약 : 고린도전서 15:1-10
ⓐ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필기고사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실기고사를 치름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½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4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4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38회 총회기간(5월 20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에게 5월 16일-20일까지 숙소를 예약할 것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Rev. Se Young Han) / Email : syhan91@hotmail.com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Cell : (703)945-2958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 허상회 목사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3) 영어권 안내 :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총회장 : 엄영민 목사 서기 : 고택원 목사 고시부 부장 : 허상회 목사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남아시아의 구주르 라자스타니(Gujur Rajasthani)

구주르족은 3개의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민족으로 이뤄져있는데, 총칭해서 "구주르 라자스타니족"이라 알려져 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도 북동부의 여러 주 즉 히마찰주, 마드야 프라데시주, 우타르 프라데시주, 잠무주, 카쉬미르주, 라자스탄주에서 살고 있다. 그밖에 서부 인도의 구자라트 지역은 구주르족의 전통적인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여러 이슬람 집단들이 11세기에 인도와 파키스탄을 침략하기 시작하자 힌두교도인 구주르족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러자 그들에게 분개한 이웃 힌두교도들은 봉기를 일으켜 이 지역을 장악했다. 구주르족은 결국 자기 땅을 떠나야 했으며 다른 좋은 목초지를 찾아 나섰다. 그들의 방랑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어졌으며 수천 명이 지금까지 그 곳에 남아있다.

1947년에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립이 일어나자, 또 많은 종족의 이동이 생겼다.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으로 이주했고, 힌두교도들은 인도로 몰려갔다.

삶의 모습

11세기에 구주르족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후 그들은 빈곤한 삶과 문맹, 사회적 억압에 찌들려왔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순박하고 비공격적인 사람들로, 관대하고 호의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인도에 살고 있는 구주르족 대부분은 법을 잘 지키는 목자와 농부들이다. 불행한 것은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보다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로부터 홀대를 당하고 있으며, 종종 도둑과 방랑자라는 라벨이 붙여진다.

인도 북동부 산림지역에서 살고 있는 구주르족은 물소를 키운다. 하지만 인도정부는 한 가구가 키울 수 있는 물소의 수와 그들이 산림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제하고 있다. 이 일은 구르드족의 주요 수입원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이후 그들은 계속해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목초지를 찾고 있다.

카쉬미르주에 살고 있는 구주르 유목민들은 중간상인들에게 종종 농락을 당하는데, 이들은 구주르의 농산물을 도시 시장에 내다판다.

구주르족의 카스트는 종교적, 지리적인 경계선을 따라 2개의 집단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슬림 구주르이고 또 하나는 힌두 구주르다. 무슬림들은 계절적인 유목민들로서, 정착기 동안 창문도 없고 방 하나뿐인 가옥에 거주한다. 힌두교도들은 1년 내내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정착농들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구주르족 대부분은 집시 같은 사람들로 땜장이, 방랑연주자, 무역상, 점쟁이 같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많은 이들이 극빈생활을 하고 구걸이나 범죄에 빠지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름철 동부의 계곡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목 염소사육자들이다. 불행히도 몇년전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 사이의 분쟁이 농사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를 파탄시키기도 했다.

산림지역에서 사는 구주르족은 대개 산림 주변의 개척지에서 집을 짓고 산다. 가옥은 1-3개의 방을 가지고 있으며 평평한 지붕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카쉬미르 거주자들 집은 전형적으로 모가 난 지붕이다. 그들은 집안의 가리막이 없는 화로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집안이 대개 어둡고 연기가 자욱하다.

구주르족은 수 백개 씨족으로 나눠지며 부계사회로, 유산은 아들에게 물려진다. 결혼은 대개 부모간 중매로 하며, 신부 값으로 현금이나 물소가 지불된다. 씨족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도 허용되며, 젊은 부부는 일반적으로 시집 근처에서 산다.

3개의 구주르족 모두가 구주르어를 말하는데 이는 인도-아리안 어군에 속한다. 이러한 공통요소가 그들이 구별되는 하위 집단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프가니스탄의 구주르족은 또 파쉬토어나 다리어를 사용하며 이는 페르시아어 계통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75%가 사용한다.

신앙

구주르족 대다수는 무슬림이지만 약 30%에 달하는 힌두교도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구주르족은 코란을 갖고 있지만 가족신상을 숭배하며 "홀리(Holi)"와 같은 전통적인 힌두교 축제를 지킨다. 무슬림 구주르족은 힌두교 관습을 공유하고 있어 다른 무슬림들에게는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에 대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바램 때문에 카쉬미르의 무슬림들은 최근 카쉬미르에 들어온 구주르인 무슬림 유목민들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했다.

필요로 하는 것들

구주르족은 성경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지만 현재 구주르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없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 문자를 개발하거나 지역 언어 중 하나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마도 이것은 기독교 교사들이 구주르족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교실서 기도회 했다' 학교 고소

미국인본주의협회(이하 협회)는 미주리 주의 파이에트 고등학교와 당해 교사를 대상으로 기도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 소속 회원인 이 학교 학생이 "수학교사 그웬 포웁이 매주 헌신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며 협회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 이번 소송의 화근이 됐다.

학생의 제보에 협회는 학교 측에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편지에서 "교사 그웬 포웁이 적어도 1년 이상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아침식사를 제공했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처벌한다'는 말을 학생들에게 했다"며 기도회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교사들은 교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도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종교적인 믿음을 전파할 수 없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학교의 결정이며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오히려 담담한 입장이다. 현지 언론 미주리안의 보도에 따르면 학교는 기도회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결국 소송전을 택했다. 이들은 "우리가 보낸 편지에 대해 학교 측에서 기도회 관행을 바꾸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우리는 결국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협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파이에트 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정보의 절반은 잘못된 것"이라며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도 "내 아이들이나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기도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며 "이번 일은 왜곡됐으며, 수업 시작 전 기도회를 하자고 결정한 사람들은 학생들이었고 그들은 그럴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VOA, 100년 넘은 기독 모금행사 중단

미국 뉴욕에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연말 기독교 기부 행사가 올해부터 중단됐다. 연중 가장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날인 블랙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부에는 인색했기 때문이다.

미국 허핑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뉴욕 쇼핑의 중심지 5번가에서 매년 블랙프라이데이에 진행된 '산타 행진' 모금 행사를 올해 29일에는 볼 수 없다고 최근 보도했다. 산타 행진은 기독단체 '미국 봉사자들(Volunteers of America·VOA)'이 1902년부터 뉴욕 번화가에서 진행해온 모금행사다.

여기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산타로 변신해 열을 맞춰 시내를 돌아다니며 모금활동을 벌여왔다. 일년 중 가장 큰 세일 기간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여서 VOA 산타들은 기부금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다. VOA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으로 독거노인 등 가난한 이웃에 먹을 것을 대접했다. 지난해에는 1200여 가정이 VOA를 통해 연말 따뜻한 음식을 맛봤다.

하지만 VOA는 "산타 행진만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행사 중단을 알렸다. 올해부터 산타복 세탁과 운반 등 행사 유지비를 줄이고 다른 방식의 모금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VOA는 뉴욕의 플라자 호텔 산타 행사장에 모금함을 놓고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레이첼 웨인스테인 VOA 홍보부장은 "대공황 이후 그 어떤 때보다 지금 굶주리는 가정들이 많아졌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할 것"이라고 말했다. VOA는 미국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의 아들인 볼링턴 부스가 1896년 설립한 기독교 봉사단체다. 볼링턴 부스는 마차를 타고 다니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눴다.

크로아, 동성결혼 불허 '후폭풍'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만 규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라는 국민투표가 가결된 크로아티아가 '차별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2일 "이번 국민투표가 앞으로 다른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근거를 마련해 준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특히 세르비아와 내전을 치렀고, 세르비아계 인이 다수 거주하는 크로아티아 상황을 두고 "세르비아인 같은 소수계의 권익을 제한하자는 법도 등장할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런 비난은 1990년대 독립전쟁에서 싸웠던 우파 단체들이 세르비아계의 공직 참여를 제한하고 세르비아 언어와 문자(키릴 문자) 사용을 금지하라는 청원을 한창 벌이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라고 발칸 뉴스 전문 '발칸 인사이트'가 분석했다. 밀라노비치 총리는 "동성애 반대 국민투표가 키릴 문자 사용 금지 투표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다수가 소수의 권익을 제한하는 투표는 이번 국민투표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동성 커플에게 부부의 권리를 부여한 '시민 동반관계'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것이라며 여론에 반하지만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보 요시포비치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했지만,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나서 이 문제가 더 분열을 일으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1일 이성 간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문안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청원을 국민투표에 부쳐, 투표율 38%에 찬성률 66%로 가결했다. 동성애 권리 단체인 '자그레브 프라이드'는 국민투표가 사람을 '정상인'과 '비정상인'으로 구분했으며, 크로아티아에 불관용과 증오가 팽배한 지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미 '세계최대' 선교방송 설립자 크라우치 목사 별세

미국에서 세계 최대의 선교 방송을 세운 폴 크라우치 목사가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79세. 1일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크라우치 목사는 캘리포니아 주 자택에서 오래 앓아온 심장병으로 숨졌다. 크라우치 목사의 손자 브랜든은 "조부는 뛰어난 기업인이자 개척자였고 먼 미래를 내다보신 분이었으며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남겼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크라우치 목사가 1973년에 아내 잰과 함께 세운 선교 트리니티 방송은 84개 위성 방송 채널과 전 세계 1만8천개 계약 방송사를 거느린 거대한 '방송제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신앙을 위해 신심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면 신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보상해준다는 내용의 트니리티 방송의 선교방송이 미치지 않는 곳은 남극 대륙 뿐이라고 한다.

고향 미주리 주에서 신학공부를 하면서 교내 라디오 방송 창설에 관여, 방송과 인연을 맺은 그는 1960년대에 '미국 하나님의성회'가 만든 선교영화 및 방송 분야 책임자로 일하면서 종교방송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뎠다. 대단한 성공을 일궜지만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 특히 "교회에 많이 기부하면 하나님은 물질적 보상을 반드시 해준다"는 설교로 재산을 모았다는 눈총을 받았다.

거액의 면제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트리니티 방송의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도 항상 따랐다. 지난해에는 손녀가 13채의 고급 주택을 소유하고 2대의 자가용 비행기를 굴리는 등 크라우치 일가족이 방송국 돈으로 호화판 생활을 즐긴다고 고발해 곤욕을 치렀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 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4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 출 서 류 ◇

❶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❷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❸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❹ 신앙고백서 1부
❺ 명함판 사진(2"×2") 2매
❻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❶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❷ 원서접수마감 : 2014년 1월 24일(금) 오후6시
❸ 입 학 시 험 : 2014년 1월 2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❹ 영 성 훈 련 : 2014년 1월 27일(월) – 29일(수) 저녁 8시
❺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10)

정 성 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자유대학의 설립과정

"교육개혁 없이는 교회도 세상도 바로 세울 수 없다" 지론
자유주의 신학자들 방해 불구 1880년 5개 학부 대학 설립

카이퍼가 자유대학을 세우게 된 것은 한마디로 인본주의 교육이냐 신본주의 교육이냐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화란의 국립대학 즉 라이덴대학, 우트레흐트대학, 흐로닝겐대학들은 신학적으로는 철저한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신학의 본산이었다. 그리고 다른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모든 학부들도 철저히 계몽주의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했다. 그러니 대학들은 국민의 정신 속에 불신앙의 원인을 불어넣는 목사, 법률가, 교수, 의사,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합리주의적 기반위에서 학문을 쌓았다. 그러한 대학들의 교육은 국가를 비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했다.

1870년에 카이퍼는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려다가 실패했다. 왜냐하면 아직도 카이퍼의 꿈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협력자도 없었다. 또 1876년에는 당시 수상 헴스켈크(Heemskerk)가 제출한 고등교육법이 통과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암스테르담 아테네 일루스티(Amsterdam, Athanaeum, Illustie)란 학교를 세워 카이퍼를 교수로 모시려 했다. 그러나 카이퍼는 이를 거절했다. 그 이유는 그 학교는 카이퍼가 꿈꾸는 칼빈주의적 대학이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도 카이퍼는 끊임없이 고등교육 법안개정 즉 국가에서도 자유롭고 교권에서도 자유로운 대학의 입법을 위해서 투쟁했다. 하지만 카이퍼는 심한 스트레스로 신경쇠약에 걸려 남유럽 스위스와 이태리에서 요양을 떠났다.

1877년 1년이 넘게 요양하다가 돌아온 그해에 개정교육법은 통과되었다. 그 개정교육법의 핵심은 자격 요건만 갖추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사상을 가진 입법부의 사람들은 자격요건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까다로운 법을 만들어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즉 대학이 되려면 반드시 5개 학부인 교양학부,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 자연과학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험과 학위와 성적은 국립대학과 동등해도 법적 자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농간은 또 있었다. 신학부를 교양학부에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는 신학을 종교학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교육법은 실제로 정부 각 분야와 대학에서 활동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요리되고 있었다.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카이퍼 박사가 원하는 대로의 대학을 실상은 원천 봉쇄하려고 했다. 더구나 교과과정에서 신학에는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을 빼버렸다.

자유주의자들은 아브라함 카이퍼와 그의 친구들이 꿈꾸는 칼빈주의 신학과 모든 학문의 영역에 신본주의 세계관 즉 칼빈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는 잔꾀였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신학체재 유지를 위해서 카이퍼의 도전을 두려워한 것이다. 즉 신학부를 종교학부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불손하기 그지없었다. 왜냐하면 종교학과 신학은 엄연히 다르다. 신학의 내용과 대상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면, 종교학은 종교를 인간사의 보편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신학을 종교학부로 고친 후 학생소집이 안 되었다. 그러니 궁여지책으로 목사교육을 위해서 각 대학에 두 명의 신학교수를 채용하기로 했으니 그나마 자유주의 신학자가 대부분이고 한 명만이 정통신학자였다. 그러나 조직신학을 맡기지는 않았다. 참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끈질긴 기득권 수호와 농간으로 교육개혁의 입법은 실상 별 의미가 없었다.

한편 카이퍼 박사는 요양에서 돌아와 건강을 회복한 후 한결같이 칼빈주의적 세계관 위에 기초한 사립대학의 꿈을 구체화 했다. 카이퍼는 국가에서 자유롭고 교권에서도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대학을 세우려고 했다. 카이퍼는 처음부터 5개 학부를 원했다. 교양학, 신학, 법학, 의학, 자연과학부였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전 영역에 확고히 자리 매김하는 것을 원했다. 카이퍼의 꿈은 당시로는 뜬구름 잡듯이 보였고 교수도 학생도 제정도 뒷받침 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카이퍼의 꿈은 작게나마 그대로 실현되었다. 1880년 개교하던 날 교수 5명 학생 5명이었다. 즉 교양학부 교수 1명 학생 1명, 신학부 교수 1명 학생 1명, 법학부 교수 1명 학생 1명, 의학부 교수 1명 학생 1명, 자연과학부 교수 1명, 학생 1명이었다. 카이퍼는 총장 겸 교수로서 신학, 히브리어, 미학, 문학 등을 교수하였다.

카이퍼 박사의 자유대학에 대한 꿈과 이상은 앞서 말한 대로 학교는 국가나 교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과과정을 짜는 것이나 교수를 선발하는 것은 국가가 간섭해도 안 되고 교권이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카이퍼가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칼빈주의적 세계관이었다. 교리적 기초는 하이델베르크 신조, 벨직 신앙고백, 그리고 돌트신경 등이었다. 즉 이는 역사적 신앙고백과 교리위에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신앙의 안목으로 역사와 세계와 인생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지는 것이었다. 인간은 중립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가 아니며 인간의 말을 따르던가 이다. 또 인간은 하나님 계시에 기초한 신앙을 갖던지 아니면 인간의 이성을 믿던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립의 명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을 기초로 한 세계관이냐에 따라서 종교, 신학,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역사이해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칼빈주의적 세계관만이 어두움의 세계를 밝혀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카이퍼의 소신은 교육의 개혁 없이는 교회도 세상도 바로 세울 수도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카이퍼는 숱한 어려움과 난관 그리고 도전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원대한 꿈, 강력한 리더십, 탁월한 조직력, 엄청난 추진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을 골고루 갖추고 기어이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렸다. 하나님께서는 19세기말 자유주의신학의 어두운 굴레에서 카이퍼를 도구로 사용해서 칼빈의 사상, 돌트(Dordt)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도록 하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메일:skc0727@yahoo.com

칼럼 음악목회 (19)

CCM(Contemporary Church Music) II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CCM이란 무엇입니까? Contemporary Church Music을 직역하면 현대교회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음악의 내용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복음성가나 가스펠송이 곧 CCM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교회나 목사나 찬양사역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잘못된 관점에서 "CCM이 '현대교회음악'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클래식음악이나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곡은 고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음악도 뿌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음악의 발전사를 이전의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약과 신약의 교회음악이 다르고 초대교회를 지나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에 이르러 오늘날의 표기법과 같은 음악을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바로크시대를 지나 고전으로 전기, 후기 낭만파시대를 지나 국민악파 시대를 거쳐 근대로 그리고 현대음악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멜로디와 화성을 가진 고전이나 낭만파시대 음악인 클래식이나 찬양대 찬양이 교회음악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음악이나 그 음악에 뿌리를 둔 전통적인 교회음악 즉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곡도 음악형식적으로 또한 하모니와 리듬과 멜로디가 계속해서 발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찬양곡은 형식과 화성과 리듬 면에서 아주 독특하고 감각적으로 현대인들에게 호응을 받는 곡들이 많습니다. 수백년 전에 작곡된 찬송가를 새로운 곡으로 편곡한 것들도 많이 있지요. 음악적으로 특징은 반주부가 어려워졌으며 리듬이 다양하고 화성도 불협화음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현대음악은 전위음악으로서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음악에서는 교회 찬양대가 연주할 수 있고 듣는 회중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곡으로 작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교회음악의 뿌리는 교회음악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혀 뿌리가 다른 반향에서 발전해오던 음악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영국과 미국으로 팔려와 살면서 삶의 애환을 표현한 그들의 영가가 후에 가스펠송으로 발전하게 된 또 하나의 현대교회음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흑인들의 영가가 팝(Popular) 즉 대중음악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발전했습니다. 백인음악으로 컨트리&웨스턴, 그리고 흑인음악으로는 흑인영가와 가스펠송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컨트리&웨스턴(Country & Western)의 시작은 청교도가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주한 때로부터 주로 영국으로부터 온 그들의 특유한 민요적 가락을 바탕으로 신대륙의 상황에 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또한 흑인영가와 가스펠송은 미국에서 같은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소나 말처럼 일하고 사고 팔리던 흑인노예들에게는 비참한 고뇌와 고통을 바탕으로 그들 스스로 버림받은 영혼을 자위하거나 세상을 싫어하는 염세사상이 담긴 특유한 음악으로 발전해갔습니다. 그들의 고향인 아프리카의 운율에 백인으로부터 받는 찬송가 가락이 믹스된 소위 가스펠송(Gosphel Song)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컨트리&웨스턴은 후로 블루스와 재즈를 발생시켰으며 1950년대에 와서 로큰롤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어 히피음악이나 디스코음악 그리고 펑크음악과 뉴웨이브와 뉴록 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흑인음악을 중심으로 발전한 가스펠송은 종교적인 민속음악 또는 대중음악의 형태로써 남북전쟁 후에 미국 시골의 남부지역에서 주로 흑인들의 교회와 흑인공동체에서 시작되었으며 음악의 특징은 아프리카적인 요소들로써 '절규' '영창(chanting)' '발구르기' '리드하는 구성원들의 발작적인 동작' 등 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스펠송은 1870년대 종교 부활의 선봉에 선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와 아이라 생키에 의해 발전하게 되었는데 백인들의 가스펠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감정적인 폭발과 정열을 자제해온 반면 파이프오르간과 찬양대가 없는 주일학교나 캠프집회, 천막부흥집회 같은 모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미국문화를 단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재즈문화입니다. 재즈에 바탕을 둔 미국 교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써 가스펠송이 미국의 풍요와 더불어 발전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자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시대는 변합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경제와 문화를 주도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이 좋아하는 유행은 바뀔 것이고 또 새로운 문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음악도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기나긴 역사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음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해갈 것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부흥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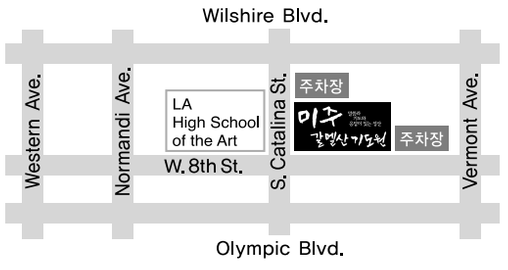
기간 : 2013년 11월 25일(월) ~ 30일(토)
12월 2일(월) ~ 12일(목)

시간 :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문의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www.galmelsan.or.kr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 강화 · 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미주 갈멜산기도원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67. 창조론의 기초(18) - 빅뱅이 사실인가?

창세기 1장을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하는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빅뱅'의 영향일 것이다. 진화가 하나님의 창조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신론적인 빅뱅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방법이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성경적인 문제점들과 신학적인 문제점들을 떠나서, 빅뱅 이론은 사실일 수 없는 많은 과학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적인 이론도 아니다. 과학적인 이론이려면 기체이론이나 전자기 이론처럼 실험과 관찰이 가능한 범위에 대한 이론이어야 한다. 하지만 빅뱅 이론은 확인할 수 없는 가정들에 근거한 기원 이론이다.

빅뱅 이론의 근거는 적색편이(redshift)인데 이는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우주팽창)이고, 그러므로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약 138억년전에는 모든 은하들이 한 점(singularity)에 모일 것이란 가정과 원리다. 그러나 이 이론은 우주의 시작이 한 점에서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큰 우주가 최근에 더 팽창하기 시작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 하지만 현재 관찰된 상황을 모든 시간 영역에 무한히 적용한 것이 바로 빅뱅의 원리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사실이 아니라면 빅뱅 이론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관찰된 사실들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성숙한 은하

점점 더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더욱 더 멀리에 있는 장엄하게 아름답고 복잡한 은하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현재 관찰된 빛의 속도로 그 은하들로부터 빛이 왔다면, 수십억 혹은 백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은하를 보는 것은 수십억 혹은 백억 년 이전에 출발한 빛을 보는 것이다(이 거리와 시간에 대한 문제는 다음 칼럼에서 다룬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그 때는 우주 역사의 초기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은하가 형성될 수 없는 시기이므로 은하들을 볼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 먼 곳에 있는 은하들은 창세기 1장의 넷째 날 기록처럼 그때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그 후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셨다(사 40:22)는 성경을 통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먼 곳에 있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은하들은 빅뱅을 부정하고 있다.

우주 배경복사(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

우주 배경복사는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온도를 가진 일종의 약한 빛이다. 빅뱅 모델은 배경복사 에너지가 우주공간 어떤 곳에서는 뜨겁고 다른 곳에서는 차가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관측결과는 이와 반대였다. 배경복사는 우주공간에서 큰 차이가 없이 거의 균일하였다. 현재의 빅뱅 모델은 이 관찰결과들에 맞도록 조정을 한 것인데 빅뱅 이론은 이렇게 이론에 반하는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교정되고 있다(그렇다면 과학자들은 과거의 틀린 이론을 '증명된'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지금 이론도 언제 변할지 모른다.)

지평선 문제(Horizon Problem)

빅뱅 모델에 의하면 우주는 한 점에서 팽창되었는데 아주 작은 상태에 있었을 때 아주 뜨거운 곳들과 아주 차가운 곳들이 공존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주공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우주 배경복사에서 설명했듯이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측정된 우주 배경복사의 상태로 우주의 온도가 균일하게 되려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흘러간다 해도 빅뱅이 주장하는 138억 년은 지금처럼 우주의 온도를 균일하게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뱅은 슬며시 기적을 끼워 넣었다!

단극자 문제(Monopole Problem)

자석은 언제나 남극과 북극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극자(magnetic monopole)는 한 가지의 극만을 가진 가상의 입자다. 현대 물리학 이론에 의하면 빅뱅 이론이 주장하는 초기 아주 뜨거운 상태에서 단극자가 많이 생겨났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개의 단극자 입자도 발견된 적이 없다.

평평성 문제(Flatness Problem)

관찰되는 적색편이에 의하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은하들은 인력을 가지고 있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려고 할 것이므로 우주는 작아지려고 할 것이다. 인력과 팽창력은 서로 반대인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 균형이 너무 완벽한 것이 문제다. 빅뱅은 이 완벽한 균형이 이유도 없는 폭발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설명해야 한다.

팽창 이론(Inflation Theory)

빅뱅 이론에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있으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가정)이 도입되었는데 바로 팽창 이론이다. 이 이론은 빅뱅 직후 잠시 동안 팽창속도가 가속된 적(inflation phase)이 있었다. 즉 기적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서 이 가속이 중단되었고 원래 속도록 돌아와 현재의 우주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무엇이 팽창을 가속시켰으며, 무엇이 그 가속된 팽창을 멈추게 했을까? 급팽창 되고 있던 모든 곳이 어떻게 동시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을까?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물론 빅뱅은 이 팽창 이론이 사실이라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배리온 수 문제(Baryon Number Problem)

우주에는 아주 적은 양의 반물질(anti-matter)만 존재한다. 반물질은 물질과 같지만 극성만 반대인 물질-예를 들면 반양성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짐-을 말한다. 빅뱅에 의하면 빅뱅 전에는 우주의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어 그 온도가 너무 높아 물질이 존재할 수 없었다. 에너지가 물질로 변할 때는 반드시 같은 양의 반물질이 생성되어야 하는데 우주에는 많은 물질에 비해 반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은 빅뱅 주장처럼 에너지가 변하여 된 것이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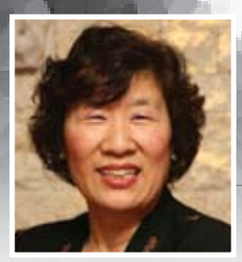
빅뱅 이론은 교회에까지도 들어와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론이므로 과학이론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론 자체와 그 증거들이 반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다. 지금의 빅뱅은 가장 확실한 우주의 법칙인 열역학 법칙들을 무시하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다. 빅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the earth)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려는 커다란 속임수다. 교회가 "성경대로"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훨씬 논리적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138억년 전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다는 '빅뱅이론' 열역학법칙 무시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비과학 이론"

빅뱅 이론은 과학적인가?
빅뱅은 가장 확실한 우주의 법칙인 열역학 법칙들을 무시하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다.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최고 명품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23:10). 자타가 공인하는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물질과 명예에 덕까지 골고루 갖춘 그런 완전 명품인생인 그에게 인생의 대 쓰나미가 닥칩니다.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모든 자녀가 죽고 머리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심지어 아내마저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어댈 정도의 인생의 대 재앙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입술로 범죄 않고 마음을 다잡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위로하러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위로한다는 것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그 지경이 되도록 치시지 않느냐고 회개를 강요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들의 말이 옳은 말이기는 하나 "주신 것도 여호와이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고 겨우 추수리는 욥을 있는 대로 흔들어대어 결국은 열불난 마음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되었습니다. 저들로 인해 그간 눌렀던 섭섭한 마음이 자기 의분으로 점화되어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이 폭발하여 욥답지 않게 할 말 못할 말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자타가 공인하도록 청렴한 삶을 생명을 다해 살아 온 이들에겐 자기의란 자연스레 쌓여진 높은 바벨탑입니다. 어느 샌가 하나님은 나란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내 삶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인생의 허다한 환란과 고생의 파도를 허우적대며 넘다보니 새삼 분내고 화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낼 수 있는 사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갑작스런 환란이 몰아닥치기 전에 욥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달듯이 만사형통일 뿐 고생을 모르는 단련되지 못한 무쇠 같은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갑자기 만나 죽을 맛인 고통에 부채질을 해대니 행위구원의 자기 의를 내세움이 즉각 발동해서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하고 원망하며 그만 하나님께 섭섭한 울화에 삼켜져 나오는 대로 함부로 폭언을 쏟아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전선에 큰 틈을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남 보기에 잘나갈 때는 자신의 진짜 믿음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심한 환난가운데 대처하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 믿음의 잣대입니다.

초신자 때에는 성경지식도 교회생활도 부족하여 차라리 나서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 탓으로 나름대로 늘어난 성경지식과 쌓여진 섬김의 시간들이 지나며 모르는 새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갑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문제가 터질 때 반응하는 그 모습이 영적성숙의 잣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물질이나 자녀들, 건강에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도 마음도 입술도 지켰으나 친구들의 들이대는 정죄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자기 의라는 자존심이 욥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이지요.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삶인 교회중직들이 되면 평생 하도 들은 것이 많아서 귀동냥으로 주워들은 지식들을 자신의 영적성숙도로 착각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많기 십상입니다. 외적인 교회의 위치를 교회의 실세로 착각하여 자기 의를 붙들고 리더십의 칼날을 휘둘 때 많은 이들을 상처주고 실제로는 자신이 본인의 자기 의로 인해 인격의 손상이 크기에 악으로 기울고, 외양은 거룩하나 속은 악으로 가득차 망가져버린 최악의 피해자가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어째 내가 손대는 것마다 세월이 가도 그날이 그날이고 지지리 궁상에 내 인생은 왜 이 지경인 게야." 욥이 지났던 쓴 밤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제 렘2:13 말씀대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자기 의라는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밀어 넣는 독약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3:15-16). 욥이 티끌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을 의로 여기시고 돌이켜 세워주신 것같이 예수님이 다시 피곤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생명을 부어주시도록 그 분께 두 손 들고 나아가십시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교·회·가·희·망·이·다
김의식 목사의 상담 치유 말씀

상한 세상의 치유

화곡동 치유하는교회 김의식 목사의
상담 치유 말씀 시리즈 4집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임을 선언하며 우리 민족의 국경일과 더불어 신앙의 절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땅을 치유하며 살 것인가를 증거한다.
치유의 말씀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상한 세상에서 많은 치유를 맺게 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교회가 희망이다, 3·1 정신, 고난의 극복, 광복의 기쁨, 감사의 행복, 종말론적 사명 총 6부로 이루어져 있다.

김의식 지음 / 480면 / 15,000원

상한 마음의 치유
336면 / 9,000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상처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늘의 샬롬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치유자이자 상담자인 김의식 목사가 쓰라린 신앙 경험과 그 치유 과정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주요 내용으로는 분노의 치유, 비교의 불행, 화해의 감격, 관점의 전환, 중년의 위기, 감사할 수 없는 자의 감사 등이 있다.

상한 가정의 치유
296면 / 10,000원

본서는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신비를 전하고 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한 가정의 치유로 시작해 교회 부흥까지 연결된 행복한 회복을 담고 있다.

상한 교회의 치유
396면 / 13,000원

본서는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이면 속에 잠겨 있는 상한 감정의 뿌리를 치유하기 위한 저자의 치유목회 설교가 실려 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가 꿈꾸는 목장에서 시작하여 치유와 회복, 믿음의 헌신, 순례자의 여정, 최후의 목표인 선교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184면 / 7,000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어머니의 마음이다. 본서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시행한 치유 프로그램 중 '어머니학교'의 개요와 열매들을 묶은 것이다. 교육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치유되며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감격이 담겨 있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204면 / 8,000원

치유하는 교회 아버지학교 12주간 교육을 마치며 만들어진 본서는 인류 역사를 빛낸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가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 주며,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룩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www.qum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Tel. 02-747-1004 큼란출판사

목회서신

무릎 꿇은 선생님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세인고등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참된 교육에 뜻있는 사람들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인수해 1999년 3월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 입학자격은 학교 성적이 중하위권이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이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전북의 한 대학에서 제시한 학장자리도 마다하고 월급 50만원의 대안학교로 오신 분입니다. 대학 학장보다는,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은 청소년들의 친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교장 부임 당시 학생들은 머리에 총천연색 물을 드리고, 귀고리 코고리 눈고리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많아 학교 내에 흡연실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말겠다고 앙심을 품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한번은 학생 3명이 자기들을 지도하던 교무주임 선생님께 앙심을 품고 밤중에 목검을 들고 습격하려 했습니다. 사전에 발각된 이들은 교장실로 불러갔습니다. 모두 목검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두 학생은 자기들의 행동을 반성하며 무릎을 꿇었지만, 한 학생은 "세상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 없다"며 "퇴학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맞섰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 마음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그 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오늘을 기억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 학생은 교장선생님을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변화되었습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장을 비롯하여 교사들이 모두 1주일에 4일은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교장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과자를 들고 오는 녀석도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장이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스스럼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때문에 2002년 첫 졸업생 36명중 33명이 대학에 진학했으며 1명은 취업했고 2명은 재수했습니다. 이 같은 높은 진학률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입학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인고는 성적이 중하위권 이하이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만 입학시킨다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영국 심리학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거절을 당한 학생은 IQ가 25%나 떨어지고 분석능력도 30% 감소했으며, 공격성은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바람직한 교육은 건전하고 따뜻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사랑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기독언론협 신임회장에 박재호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최선"

세계기독언론협회(회장 서인실)는 2013년 정기총회를 27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갖고 신임 회장에 남미복음신문 발행인 박재호 목사(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세계기독언론협회는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박재호 목사는 "내 생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멍에를 메는 심정으로 1년 동안 힘껏 나아가겠다"며, "세계기독언론협회 이외에도 여러 단체에서의 회장이라는 감투를 가지고 있다. 좋을 때는 괜찮지만 어려울 때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1부 예배는 서인실 회장의 사회로 시작, 윤우경 회계가 기도했으며, 박재호 목사가 '큰 비전, 큰 기도, 큰 기대를 걸어라'(사54:1-3)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서종천 목사가 축도했다.

박재호 목사는 "윌리암 캐리는 낡은 구두수선공이었으나 큰 꿈을 품고 큰 기대를 갖고 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세계선교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기독 언론인들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큰 꿈을 꿔야 한다. 돈 벌고 안 벌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기독언론은 재벌이 아니다. 가난하다. 그러나 큰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천국사업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기독언론협회는 2014년 1월중 교계지도자초청 신년하례 겸 이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2014년 세계기독언론협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재호(남미복음신문) △부회장: 윤우경(크리스천헤럴드), 조명환(크리스천위클리), 임승쾌(크리스천타임즈) △서기: 이성자(미주크리스천신문) △회계: 서인실(크리스챤투데이) △감사: 진미예(미주복음방송).

〈박준호 기자〉

OC목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신임회장 김영찬 목사

OC목사회 신임회장에 김영찬 목사

"미자립교회 후원...열심히 섬기겠다"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신종은 목사) 정기총회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복음루터교회(담임 문현봉 목사)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김영찬 목사(효사랑선교회 회장)를 추대했다.

김영찬 목사는 인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전임 임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내년은 미자립교회에 물질과 찬양과 봉사로써 후원하려고 한다. 열심히 섬겨서 목사회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OC목사회 사역으로는 2월 11일 성경전체개관 암송 세미나, 5월 4일 멕시코 티후화나 단기선교, 6월 사모 축복의 밤, 8월 목회자아버지학교, 9월 목회자 영상설교 세미나 등이 있었다.

2013년 수입은 2,718.63달러, 지출 3,026.85달러로, 308.22달러의 이월결손금이 생겼다. 총회가 열리기전에 개최한 예배는 문현봉 목사가 설교했으며, 축도는 이종은 목사(오렌지한인교회 원로)가 했다.

다음은 2014년 OC목사회 조직이다.

△회장: 김영찬 △수석부회장: 곽재필 △부회장: 민승기(대외담당), 오상철(신학담당), 김홍권(청년담당), 박용일(장년담당), 이재근(가정선교담당) △총무: 김호겸 △행정총무: 민승배 △영성: 권병록 △청소년 교육: 조진용 △서기: 임성필 △회계: 노상철 △부회계: 남승우 △선교분과: 전인철 △구제분과: 이천선 △홍보분과: 박사무엘(이상 목사) △행사분과: 손찬우 집사.

〈박준호 기자〉

해외한인장로회(KPCA) 여선교회(회장 송교미 권사) 임원들이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발전기금으로 $3,000을 후원하였다. 본선교회는 차후 $5,000을 더 후원하기로 약정하였다.

KPCA 여선교회 미주장신대 후원금 전달

해외한인장로회(KPCA) 여선교회(회장 송교미 권사) 임원들이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를 방문해 학교 발전기금으로 3천 달러를 전달했다. 본 선교회는 차후 5천 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약정했다.

〈기사제공: 미주장신대학교〉

APU한인동문회 신임회장 곽경동 목사

2일 임시총회, 수석부회장에 정중한 목사 선임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윌레스 박사)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는 2일 오전 10시 APU LA 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곽경동 목사(새삶교회 담임)를, 수석부회장에 정중한 목사(남가주믿음의교회 담임)를 추대했다.

신임회장 곽경동 목사는 "APU 한인동문회가 화합하는 동문회, 기도하는 동문회, 부흥하는 동문회가 됐으면 한다. 전임 동문회장들의 헌신으로 동문회가 발전해왔다. '하나님 먼저'라는 APU의 정신을 잘 계승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2월중에 열리던 정기총회를 11월중에 개최하며 이를 위한 소집공고를 10월중에 하는 것으로 회칙수정이 이뤄졌다. 〈박준호 기자〉

APU한인동문회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신임회장 곽경동 목사(사진 오른쪽)과 이임회장 최장식 목사(사진 왼쪽)이 총회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주판 2014년 다이어리
2014 DIARY
up to 50% 세일

임마누엘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큐티를 겸한 임마누엘(미주판)
칼라:자주, 브라운
대(23/16.5cm)

쿰 란
다양하고 짜임새인는 컨텐츠로 구성!(미주판)
칼라: 군청색, 브라운
대 (23/16.5cm)
중 (18.5/13.5cm)

하이옴
(생명의 말씀사)
30년 동안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의 친근한 사역 도우미!
칼라: 다양한 색상
대(23/16.5cm)
중(18.5/13.5cm)

FREE!
<20개 이상 단체 주문시>
다이어리에 인쇄해 드립니다.
(교회명, 전화번호, 주소)

아가페
고급스런 표지와 세련된 디자인(미주판)
칼라: 군청색, 브라운, 검정
특대(23/16.5cm)
대(21/13cm)
중(17/11cm)
소(13/7cm)

하경삼
모던한 디자인의 미주판 다이어리!
칼라: 다양한 색상
대(19.5/14.5cm)
중(18.5/12.5)

양지사
전세계인이 함께쓰는 다이어리
칼라:다양한 생상
특대/대/중/소/특소

<영문판>
(특대)
일반영문판

올해내게주신말씀 책갈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찬 한해를 맞이하세요!"

2014년 "올해내게주신말씀 책갈피"는 고급띠 매듭으로 만들어짐.
한글,한영으로 전면디자인 20가지, 성구 500구절로 만들어짐.
*12월10일까지 주문시 교회명, 전화번호, 주소 인쇄해 드립니다.

인생의 1/3을 잠(수면)으로 보냅니다. 하루의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밤...
메밀 야곱의 돌베개

특 징
- 코골이 예방
- 목주름 에방

숙면은 양보다 질...
만가지 보약보다 쾌적한 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수면의 효률을 극대화 하도록 만들어진 목주름 예방 목베개
바로 혈액순환개선이 되도록 설계된 목주름 예방 목베개입니다.

연말연시 특별세일
기간 2013년 11월 ~ 12월 말까지

Sale 1.
호산나 서점 점포정리 - 전품목 up tp $2.00
(호산나 서점이 경기 불황 침체로 점포 정리함. 기독교서적센타에서 전품목 인수하여 현 가격과 상관없이 개당 up to $2.00씩 판매함)
주석류, 일반 신앙서적류 일체/ 찬송, 찬양류/ 듣는 성경, CD/DVD 일체, 말씀성구, 성화 액자류 / 성구로된 컵종류

Sale 2.
"기독교서적 센타에서는 전품목 up to 50% 세일"
큰글자 성경류, 한영성경류, 신앙서적류/ 각종 말씀성구, 성화액자, 말씀 자수로 된 타월류 성구로 된 컵 종류/ 수천종류 말씀 선물류 등

Sale 3.
"기독교서적센타에서는 강대상류 up to 30% 세일"
* 크리스탈 강대상 - 사회상, 선찬상, 화분대, 강단의자, 헌금함, 헌금보조대, 심자가 기타
* 나무강대상 - 사회상, 선찬상, 화분대, 강단의자,헌금함(대/중/소), 십자가(특대/대/중/소)
본당 장의자, 본당 개벽의자 기타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영업시간 9:30AM~7:00P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TEL. (323)737-7699, (323)737-4526 / FAX. (323)733-8850
Toll Free: (800)669-0451 / 인터넷 쇼핑몰: www.koramdeo.com
E-mail.cbc0191@hot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박사)가 2014년 봄학기 주, 야간 학생을 모집한다.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각 4년) △대학원: 목회학과(3년), 기독교교육학, 선교학과(각 2년)와 △여교역학과(3년)가 있다. 입학원서와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신앙고백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등이 필요하다. 입학전형료는 30달러. 원서마감은 2014년 1월 24일(금) 오후 6시이며 25일(토)에 시험이 있다.

▲문의: (718)463-7163, (646)717-2733

미드웨스트대학교 봄학기 신입생 장학혜택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2014년 봄학기 신입생들에게 특별장학혜택을 준다. 학위과정은 △ESL △대학부: 종교교육, 종교음악, 종교경영 △대학원: 기독교상담, 기독교교육, 교회음악, TESOL, 신학 △박사원: 목회학, 교회음악, 크리스천리더십. 학위취득은 온 캠퍼스(I-20 비자발행)와 오프 캠퍼스(시간 장소 구애없이 학위취득), 블랜디드로 다양하다. 메인 캠퍼스는 미주리 주 웬츠빌에 있고 워싱턴DC에 분교가 있다. 홈페이지 www.midwest.edu

▲문의: (636)327-4645,

교회 살리는 언론으로...

KCBN 2013 후원감사예배 성황

KCBN 2013 후원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과 직원, 공연팀 등이 기념 촬영했다.

미주기독교방송 KCBN(사장 문석진 목사, 이사장 윤세웅 목사) 2013 후원감사예배가 지난 2일 저녁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문석진 목사는 "발걸음 해주신 참석자들에게 감사한다"며, "계속적인 기도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최근 버라이존 사정으로 방송청취가 안됐었는데 수신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라디오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뉴욕찬양마을(대표 문석진 목사)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시작된 1부 예배는 이사 박마이클 목사 인도로 기도 박상일 목사(뉴욕남교회), 성경봉독 이대연 장로(뉴욕교협부회장), 특송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김승희 뉴욕교협회장, 동영상 상영, 헌금송 밀알크리스털핸드벨앙상블, 헌금기도 최고센 목사(뉴욕서광교회), 축도 윤세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희 목사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삼상24:4-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식사와 후원감사는 문석진 목사 사회로 식사기도 이만호 뉴욕목사회 부회장, 사역소개 및 인사, 감사패 증정 등이 있었다. 감사패는 장항준 내과와 함승환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3부 찬양제는 오영아 아나운서 팀장 사회로 미동부숭실OB남성합창단, 소프라노 에리카문, NYSMA 앙상블 피아노 트리오, 월드밀알선교중창단, 필그림선교무용단 등의 공연이 있었다.

이어 4부는 경품잔치에 들어가 참석자들은 진주목걸이 등 많은 상품을 타가기도 했다.

지난 1990년 개국한 KCBN은 설교, 찬양, 기도, 신앙 강좌, 상담, 기독교 교양 프로그램 및 교계뉴스를 24시간 방송하고 있다. 방송은 전용 라디오와 스마트폰, 인터넷(www.kcbn.us), 디지털 TV WMBC-63.9 채널을 통해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코네티컷에서 수신할 수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제 42회기 임실행위 조직발표

기획분과 신설, 총 108명 대거 참여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익 목사) 제42회기가 임원 등 조직을 확정했다. 목사회는 이번 회기에 기획분과를 신설, 임원진의 사역을 적극 돕기로 했다. 총 108명으로 구성된 임실행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열린 뉴욕 목사회 정기총회에서 신구임원들

△회장: 황동익 △부회장: 이만호 △총무: 유상열 △서기: 이영상 △부서기: 임용수 △회계: 김정숙 △부회계: 김신영 △협동총무: 조병광, 한준희 △감사: 김상태, 김진화, 김희복

△기획분과위원회: 김홍석, 이성헌, 이종명, 임병남

△협력분과위원회: 김영철, 김명옥, 김석충, 김윤철, 김연규, 김재호, 김해근, 김형규, 김혜택, 김요셉, 박진하, 박맹준, 박태규, 송원섭, 이은수, 이철희, 유승례, 이규형, 장길준, 하정민, 오태환, 윤숙현, 임재홍, 안찬수, 윤오성, 전희수, 정재현, 함성은, 케더린권

△자문위원: ◊목회 및 신학윤리: 장영춘, 방지각, 최창섭 ◊원로목회자: 박희소, 조의호, 김전 ◊전도 및 선교: 김남수, 황경일, 신현택, 최예식 ◊개척교회: 이문구, 한재홍, 최웅렬, 김종덕 ◊교회협력: 허걸, 김원기, 양승호, 김종훈 ◊이단대책: 안창의, 이병홍, 정도인

△특별분과위원(장): ◊법규: 장석진 ◊선거관리: 송병기 ◊인권: 정수명 ◊목회: 이규섭 ◊장학구제: 김재열 ◊교육: 정순원 ◊이단대책: 이광희 ◊해외선교: 황영진 ◊부흥강사단: 이풍삼 ◊청소년지도: 김석형

△분과위원회: ◊목회 이승재 ◊선교 김수태 ◊사업 김영환 ◊전도 이지용 ◊섭외 유용진 ◊기도 허윤준 ◊교육 정관호 ◊복지 조부호 ◊사회 현영갑 ◊국제 이희선 ◊행사 정대영 ◊체육 이창남 ◊상담 이승진 ◊친교 손한권 ◊봉사 한석진 ◊홍보 문석진 ◊음악 신우철 ◊지원 박성원 ◊의료 김금옥 ◊유년 안승백 ◊여성 이미선 ◊노인 한재열 ◊경조 박태성 ◊출판 라홍채 ◊장애우 이준성 ◊청소년 박마이클 ◊미디어 우병만 ◊선교사 주효식 ◊개척교회 손한권 ◊역사자료 박이스라엘 ◊원주민선교 김기호 ◊민족복음화 김태헌(이상 목사).

한편 뉴욕목사회는 12일(목) 오전 10시30분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익 목사)에서 회장단 이취임식을 갖는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후원자의 밤에서 임원 및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당신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

미동부국제기아(飢餓)대책기구 후원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 후원자의 밤이 지난 1일 저녁 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열렸다. 그동안 아동후원을 해온 후원자들을 초청하는 자리에서 박진하 회장은 '당신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라는 벽에 걸린 배너의 표어를 소개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이 일에 지속적인 기도와 성원을 부탁"했다.

행사는 사무총장 유상열 목사의 사회로 기도 부회장 전희수 목사, 말씀 초대회장 황동익 목사, 사역영상, 인사 박진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역영상은 동 기구가 후원하는 지역인 콜롬비아와 페루가 소개됐다.

황동익 목사는 신명기 33장 29절을 본문으로 "전세계 3분의1이 기아에 있다고 하는 이때에 행복이 무엇인가" 묻고 "돈, 권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진다"며, "새 언약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영광의 승리를 함으로 행복해져서 기아대책 아동들을 후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립배경 및 약사에 대해 이사장 황영진 목사가, 임원소개는 박진하 목사가, 중심사역 소개는 사업국장 김영환 목사가, 후원감사는 상임자문 김인한 장로가, 후원안내는 기획국장 임병남 목사가 맡았다.

특히 후원안내를 맡은 임병남 목사는 어린 시절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후원한 두 분의 선생님 이야기를 하며 참석자들에게 후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내선교국장 이종명 목사의 만찬기도에 이어 참석한 후원자 소개가 있었으며 후원자 간증이 있었다. 이찬양 간사의 광고 후 자문위원 최창섭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1971년 설립된 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89년 한국에서도 시작돼 선교사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서 "떡과 복음"이라는 공생적 사역을 하며 다양한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미동부 지역에서는 주로 아동후원을 중심으로 지역 CDP센터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날 배부된 홍보지 "오병이어"에는 그동안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의 활동이 수록됐으며 현재 후원하고 있는 아동들의 사진과 국가, 후원자 명단이 게재됐다.

동 기구 주요사업인 해외아동후원은 현재 콜롬비아, 페루, 북한, 중국,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의 63명을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비는 한 달에 30달러로 한 아동의 생활비와 의료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eafh.org, 이메일 breadgospel@gmail.com 를 참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필라교협 제1차 실행위 제34회기 사업 발표

성지순례, 이단대책 세미나 등 특별행사 계획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선훈 목사)는 지난 26일 오후 6시 새한장로교회(담임 고택원 목사)에서 34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1부 경건회는 회장 김선훈 목사 사회로 강승호 목사 기도 후 박등배 목사가 마27:32-44을 본문으로 "억지로"라는 제목으로 '종의 사명을 강조'하는 말씀을 전했다. 고택원 목사 축도, 박도성 총무 광고로 마쳤다.

이어 김선훈 회장 사회로 회의가 진행됐다. 34회기 조직을 발표한 후 지난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4년 복음화대회: 6월 12일(목)-15일(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 △기독교 종교개척지 탐방: 2014년 9월 8-18일 △성탄축하 찬양예배: 12월 8일(주) 오후 6시 영생교회(담임 이용걸 목사), 이날 헌금 전액은 필리핀 재난 구제금으로 사용 △구세군과 합동으로 연말 불우이웃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2014년도 신년하례: 1월 8일(주) 오후 5시 △이단대책과 조사위원회 재조직 △각분과 정, 부위원장은 임원회 추천인들과 회원들이 모여 선출키로 했다.

이외에 교협 정규사업으로는 △부활절연합예배 △신년기도회 △광복절기념예배 △청소년복음화대회 △교협웹사이트 오픈 △미션지 발간 △장학생 선발 △한인양로원방문 △회원교회 경조상 등이 있다.

특별행사로는 △성지순례 △이단대책 세미나 △성경퀴즈 암송대회 △필라 리더십파운데이션 △미동부지역 목회자연합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교협 일년 총예산은 6만6천 달러로 결의했다.

다음은 실행위원과 각 분과위원장 및 자문위원 명단.

▲실행위원: 강승호, 강학구, 고택원, 김성철, 김영천, 김창만, 김치수, 김풍운, 박등배, 신청기, 안문균, 안재도, 이광풍, 이대우, 이용걸, 임관호, 전영현, 조진모, 주은재, 차명훈, 천조웅, 최형관, 호성기, 황준석(이상 목사), 김낙렬, 김용식, 김종식, 김태연, 배우태, 백홍기(이상 장로).

▲분과위원장: △전도 김창만 △신학 김풍운 △대내 호성기 △대외 황준석 △조통 전영현 △정보통신 고택원,△홍보 강승호 △음악 박등배 △청소년 박성일 △교육 이대우 △평신도 최형관(이상 목사) △재정 미정.

▲자문위원: 고인호, 김만우, 백형무, 현인덕(이상 목사), 김대현, 김주현, 박상구, 박상익, 신해균, 서장석, 이건상, 박한용, 한영권, 엄홍섭, 오상백(이상 장로).

〈기사제공: 필라교협〉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요.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 선포"
1일, 남가주교협 이취임 감사예배 성황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제44대 교협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지난 1일 오후 4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개최했다.

박효우 회장은 취임사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리고 남가주 내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44대 남가주교협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인디언 지역에 있는 차세대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사업, 뉴멕시코 주 인디언지역에 한국관을 세우고 한국문화와 관습 등을 전파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일에 교협이 함께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모위로의 행사를 준비하며 성지순례 가지 못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44대 남가주교협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박효우 신임회장이 진유철 이임회장에게 교협기를 이양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원영호 수석부회장 대행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이취임 예배는 강용순 부회장이 기도, 지윤성 부회장이 성경봉독,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 이정남 증경회장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삼상 18:10-16)라는 제목의 설교로 이어졌다. 또한 진유철 이임회장의 이임사가 있었으며 교협기 이양식이 있었다.

특별히 이날 김문수 한국경기도지사가 축하영상을 보내왔으며,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민경엽 목사가 축사를 통해 "박효우 회장의 추진력에 44대 남가주교협의 사역에 기대가 된다. 올 한해 OC교협이 남가주교협과 힘을 합쳐 교회연합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주력하며, 제 44대 남가주교협회장에 취임한 박효우 목사와 회장단"을 축하했다.

그밖에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최순영 목사와 남가주목사회증경회장 석태운 목사가 축사한 후, 신임회장 박효우 목사가 이임회장 진유철 목사 및 이임이사장 박영집 장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다음은 남가주교협 제 44대 회장단 명단이다.

△회장 박효우 목사 △수석부회장대행 원영호 목사 △부회장 강용순 목사, 강종민 목사, 강준민 목사, 고재원 목사, 김광수 목사, 김바울 목사, 김선국 목사, 김성민 목사, 김성일 목사, 김영배 목사, 박형은 목사, 서오석 목사, 이동준 목사, 이우형 목사, 이주철 사관, 이춘준 목사, 정우성 목사, 정영희 목사, 지윤성 목사, 최혁 목사 △사무총장 박세헌 목사 △총무 홍성관 목사 △부총무 정충일 목사, 김영구 목사, 김성실 목사 △협동총무 남철우 목사, 지역교협 총무단 △서기 차권희 목사 △부서기 김호곤 목사 △회계 김철수 목사 △부회계 진석호 목사 △감사 정삼회 목사, 노승용 장로 △이사장: 홍순헌 장로.

〈박준호 기자〉

LA 종교, 시민, 비즈니스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이민 개혁 촉구를 위한 '금식'을 지난 26일(화) Chapel of the Relic of the Tilma of St. Juan Diego 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에서 개최했다.

이민개혁촉구를 위한 금식 선포식
한기형 목사, 임혜빈 회장, 박종대 목사 등 참가

LA 종교, 시민, 비즈니스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이민개혁촉구를 위한 '금식'을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 Chapel of the Relic of the Tilma of St. Juan Diego 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에서 개최했다. 이날 금식은 José H. Gomez 대주교, Mark Ridley 수퍼바이저, Maria Elena Durazo 노동사무총장, Alan Rothenberg 상공회의소 소장, LA 종교지도자, 시민 그리고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대표들이 의회의 포괄적인 이민개혁 통과를 촉구하며 실시했다.

한인으로는 나성동산교회 한기형 목사, KCCD 임혜빈 회장, 이사장 박종대 목사 등이 참가했다. 이민 가정을 위한 LA금식은 이민개혁 지지자들의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운동이며, 미국의회와 전국 여러 장소에서 나라의 붕괴된 이민시스템으로 인한 많은 가정의 도덕적 위기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다.

주최 측은 'LA 이민개혁촉구 24시간 금식'에 지지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고메즈 대주교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기 위해 추수감사절 만찬에 가족이 모이지만 많은 이민사회 가족들이 붕괴된 이민시스템 영향으로 추수감사절에 만나지 못한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많은 이민 가정이 계속해서 모일 수 있도록 의회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기도하고 금식하겠다"고 밝혔다.

두라조 LA노동 사무총장은 "강제추방으로 인해 많은 가족이 헤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의회지도자들이 편안한 식사를 하는 것은 도덕적 횡포다. 우리의 금식기도가 도덕적으로 작은 도움이 되고 정치적 긴요함으로 의회가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류기종 박사의 저서 '영성강좌' 출판기념회에서 저자의 말씀시간에 류기종 박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류기종 박사 '영성강좌' 출판기념회
"영성신학은 한국 신학교육에 중요"

류기종 박사의 저서 '영성강좌' 출판기념회가 2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류기종 박사는 "여러분의 사랑과 염려와 기도로 건강하게 지낸다. 영성강좌 출판도 기도의 힘으로 출간하게 됐다. 영성신학은 한국의 신학교육에 중요하게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이 책은 영성에 대해 강의를 하고 연구하면서 결론으로 나온 책"이라 소개했다.

김영대 목사(전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출판기념회는 김택규 목사(전 남가주감리교 원로목사회 회장)가 기도, 임원규 박사(연경회 초대회장) 축사, 전중현 박사(보스턴대학교)가 서평을 했으며, 김관진 목사(전 KUMC 감리사)가 격려사를 , 박태균 권사(나성한인감리교회 지휘자)가 특송을 불렀다.

이어 김옥남 목사(유타주 코사지 수련원 이사)가 독후감을, 류기종 박사가 저자의 말씀을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남기철 박사(전 목원대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류기종 박사는 1933년 12월 3일 충남논산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학사(B.Th)와 석사(Th.M)을 취득했으며 미국 드류대학교 대학원에서 M.Phil 및 Ph.D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호서대, 강남대, 서울신대에서 강사를 역임했으며, 목원대학교 신학과, 현성대학교 신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미주감신대학교에서 교수 및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평화영성신학연구원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연세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 총회 및 송년행사
연세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회장 이태섭)는 2013년 총동문회 총회 및 송년행사를 오는 21일(토) 오후 5시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CCC 1509 Workman Mill Rd. Whittier)에서 개최한다.
▲문의: (626)333-4571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장교회 성탄모임 및 정기총회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장교회(OCU 회장 장석윤 장로)는 오는 10일(화) 저녁 6시30분 복음방송국 4층 공개홀에서 송년 성탄절 예배 모임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문의: (818)905-9061(장석윤 회장)

행복한교회 Connection 2013
행복한교회(담임 장경훈 목사) 청년부는 '세상과 교회가 하나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Connection 2013' 행사를 12월 7일(토) 오후 7시 30분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색소폰 연주자 캘빈박, 찬양가수 최윤영, 허지애, 밴드 핸드메이드 등이 출연한다.
▲문의: (626)383-1141

남가주샬롬교회 입당기념 음악회
남가주샬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입당기념 감사 음악예배가 15일(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열린다.
▲문의: (310)787-1004

미주성결대 후원의 밤·명예박사 수여식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 1818 S. Western Ave. LA, CA) 2013년도 후원의 밤 감사예배 및 명예박사 수여식이 오는 15일 오후 4시 미주성결대학교 채플실에서 열린다.
▲문의 (323)643-0301

KCCD(한인기독교 커뮤니티 개발협회 회장 임혜빈)는 지난 21일(목) 오후 4시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랑나눔행사로 50여 작은 교회들에게 터키와 장바구니를 쟌 페레즈 주하원의장이 후원으로 전달하였다.

KCCD 추수감사절 맞이 사랑나눔행사

KCCD(한인기독교 커뮤니티 개발협회 회장 임혜빈)는 지난 21일 오후 4시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랑나눔행사로 50여 작은 교회들에게 터키와 장바구니를 쟌 페레즈 주하원의장 후원으로 전달했다.

〈기사제공: KCCD〉

미주한인재단LA 정동철 제8대 회장 선출

미주한인재단-로스앤젤레스(회장 빈센트김)는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정동철 제 8대 회장을 선출했다. 지난 11월 21일 오후 6시30분 신북경 식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선출된 정동철 신임회장은 2014년 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2014년 미주한인의 날 준비위원장을 맡아 차기회장으로 현직회장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게 된다.

신임 정동철 회장은 강원도 횡성 출생, 강원대(춘천) 법대 졸업, 육군 만기 제대, 1978년 미국 이민전 세계 한민족 동질성 회복운동 본부장, 영앤젤스 어린이합창단 설립 초대이사장, 전세계 해외동포축구연합회 부회장, 재미강원도민회 회장 미주한인재단 전국고문 등을 역임했다.

〈기사제공: 미주한인재단-LA〉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 S 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건 물 렌 트
뉴저지 릿지필드팍 한인타운에 있는
건물을 렌트나 매매를 합니다
- 교회도 가능합니다 -
주차장: 100대
사이즈:11,000 SQ
토 지: 2 에이커
렌트, 매매 옵션
연락처:646)286-9336 (Rich)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TEL. 800.347.7057
워싱턴DC 지사 TEL. 800.228.2928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교회 정치참여 바람직한가

기독교계 '정교분리' 싸고 논란

[미션라이프]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지난 2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신부들의 시국미사를 둘러싸고 종교계의 정치참여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독교계 역시 보수, 진보가 시국선언 등을 발표하면서 정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문자적 의미의 '정교분리'는 깨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불교 조계종 승려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면서 종교와 정치참여 논쟁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한국교회 정치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종교와 정치의 야합도 치명적이지만 정당한 정부에 대한 종교계의 대항도 옳지 않다"며 "이는 종교와 정부를 함께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종교계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하며 폭정과 독재에 대해 항거할 수 있는 것은 권리이며 의무"라고 말했다.

장신대 김명용 총장도 앞서 지난 25일 한 강연에서 "교회는 권력 지향적이거나 정치 중립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섬김과 대화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면서 동시에 불의를 비판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28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성직자들은 현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교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정치참여는 공교회나 목회자의 직접 참여는 거부하되 크리스천 개인은 허용하고 있다. 지형은 성락성결교회 목사는 "기독단체 등 '교회 밖 선교단체'로 불리는 파라처치(Para Church)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공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거부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교회의 정치참여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서구 사회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 정립에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해 왔다. 영국과 미국은 정치와 종교를 구분했다. 영미의 정치에는 특정 종교를 직접 내세우는 정당은 없다. 반면 유럽과 남미는 100개가 넘는 기독교 정당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추구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정교분리가 무너졌다. 미국은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했지만 개신교회와의 관계는 늘 논란이 돼왔다. 특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의 근본주의 기독교 신앙을 부각하면서 국내외 정책을 추진해 거센 반발을 샀다.

정교분리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성경구절은 마태복음 22장 15-21절 말씀이다. '가이사(로마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고 권위에 대한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인두세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열심당원들에 반대하면서도 가이사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상반되지 않음을 암시했다. 신학자들은 그러나 두 충성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교회의 정치참여는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견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교회의 정치참여가 분열과 반목으로 쪼개진 현 한국적 상황에서는 또 하나의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교계 원로들이 일방적 비판보다는 포용적 자세가 절실하다고 제안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목사는 "국가의 평화를 위해 교계가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안 실행위도 통과

교계 "연합기구 정신 훼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정관개정안이 실행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은 연임을 위한 재출마의사를 밝혀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기총은 3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제24-3차 실행위를 열고 한기총 정관 제1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골자는 대표회장의 임기를 기존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

정관 개정안은 앞서 2차례 임원회에 상정됐지만 첫 번째는 보류, 두 번째는 부결됐다. 하지만 부결 9일 만인 지난달 21일 세 번째로 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날 실행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달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홍 대표회장은 실행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내년 1월 연임에 성공하면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면서 "'7인 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통합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회장은 또 "통합이 이뤄지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양 기구간) 통합 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회장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합의 당사자인 한교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교연의 한 임원은 "한교연과 한기총의 통합은 언젠가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하지만 홍 대표회장의 '통합 발언'은 한교연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본인 선거용' 발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홍 대표회장의 연임 강행을 놓고 특정교단(예장합동)의 대표회장 장기집권은 교회연합기구의 정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 대표회장이 소속된 예장합동은 이미 3년 이상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아왔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내년 1월 말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한기총은 또 오는 13일 오후 1시 서울 국회 대강당에서 시국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교계 지도자들 '나라 안정 위한 조찬 기도회'

"다툼 멈추고 자성 · 통합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툼을 멈추고 자성과 통합에 힘쓰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에서 대립과 논쟁이 잇따르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나라의 안정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갖고 성명을 통해 "지금은 국론분열과 좌우 이념 대립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며 "국내외 경제위기와 북한의 위협, 강대국들의 패권쟁탈에 맞서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모든 정쟁을 멈추고, 종교계는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도회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전 총장 림택권,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명성교회 김삼환, 한기총 증경회장 엄신형 이광선, 서울기독대 총장 이강평, 한교연 증경회장 김요셉,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김경원, 새에덴교회 소강석,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김승규·박성철 장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종교계의 잇따른 시국선언에 우려를 표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민감한 정치 사안에 대한 편향적 언동을 삼가고, 종교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상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고, 누구든 선장을 흔들면 안 된다"면서 "그러나 선장에게는 권한과 함께 무한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여 세상의 본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한다"고 밝혔다.

기도회를 주최한 김장환 목사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는 법에 맡기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종교계가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림택권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더욱 낮아져 세상을 섬기라 권고하신 것"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다음세대 전도 키워드는 '만남'

브리지임팩트사역원 설립자 홍민기 목사 주장

"주일에 한번 만나 '사랑한다' '축복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주중에 만나 떡볶이 한 그릇 같이 먹는 것에 아이들은 더 감동합니다. 그만큼 다음세대 전도에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역단체 브리지임팩트사역원(Bridge Impact Ministry) 설립자 홍민기 목사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다음세대 전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세대의 영적부흥을 위해 아이들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미교포 1.5세인 홍 목사는 미국에서 청소년사역을 위해 1996년 BIM을 설립했다. 한국에서는 2004년 귀국해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BIM을 통한 청소년 사역에 힘써온 홍 목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지난 18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3년 전 부산호산나교회 담임으로 취임한 홍 목사는 공동대표로 편딩만 담당하고 고은식 기획팀장에게 새 대표 자리를 맡겼다.

홍 목사는 "교회학교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차세대 사역에 대해 표어와 말로만 했지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마음을 두면 사랑할 수 있고 아이들이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지금이 오히려 청소년 사역 부흥의 적기"라고 말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만 집중할 전임사역자가 필요했다"며 대표에서 물러난 이유를 전했다.

신임 고 대표는 "이제 직접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 한다"며 "사역단체와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같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표 이·취임식은 지난 18일 서울 둔촌동 BIM 사무실에서 열렸다.

BIM은 교회에 청소년 사역을 세워주기 위해 청소년과 청소년 사역자, 청소년을 둔 가정을 위한 전문사역을 해오고 있다. 여름·겨울캠프, 청소년사역자학교 지역투어, 가족캠프 및 부모세미나 등도 열고 있다.

예장합동 요직 총신대 총장에 7명 출사표

김길성 임경철 김성태 박수준 한춘기 교수, 길자연 박순오 목사

총신대 총장 선거에 길자연 왕성교회 원로목사와 한춘기 총신대 교수 등 7명의 목회자와 교수가 입후보했다. 총신대 총장은 예장 합동 교단 내 요직으로 향후 총회 정치구도와 직결돼 있는 만큼 교단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신대는 28일 "총장 후보 접수 결과 총신대 김길성 임경철 김성태 박수준 한춘기 교수, 길자연 박순오(대구 서현교회) 목사가 등록을 했다"면서 "다음달 5~6일 총장후보 추천위원회 검증을 거친 뒤 17일 운영이사회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에 선출되려면 1-3차 투표에서 3분의 2이상을 얻어야 하며, 4차 투표까지 갈 경우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총장직에 교단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총신대가 총회본부, 총회세계선교회(GMS), 기독신문과 함께 교단 4대 기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장 합동은 2만1700여명의 목사와 2만900여명의 장로, 1530여명의 총회 대의원이 소속된 국내 최대의 교단이나 예장 통합이나 기감처럼 산하 기관의 자리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들 4개 주요 기관을 어느 지역, 어떤 계파의 인사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교단 정치 구도가 짜여지는 셈이다.

이번 선거는 길자연 목사와 한춘기 교수가 맞붙고 김길성 총신대 총장대행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2강1중'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단의 한 관계자는 "길 목사와 한 교수는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밝히고 각자의 지역, 정치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선거준비를 해 왔다"면서 "김 교수 역시 총장대행이라는 우위아래 선거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 목사는 "총신대가 현재 위기 상황인데 구슬을 꿰듯 잠재된 역량을 잘 이어 글로벌 신학대, 종합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교수는 "한국교회가 정체 또는 쇠퇴상황인데 부흥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신학적 정체성을 세우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아대책 정정섭 회장 별세

기아대책 회장 정정섭 장로(새순교회·사진)가 28일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골수종암으로 입원치료 중 별세했다. 향년 72세.

정 회장은 1989년 한국 최초의 국제원조 비정부기구(NGO)인 기아대책 창립 멤버로 2005년부터 회장직을 맡아 '떡과 복음'이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기아대책 관계자는 "최근 지병으로 투병 중이다 지난달부터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받아 왔다"며 "유족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 한국에서 기구 차원으로 장례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1941년 충남 논산 출생인 정 회장은 59년 고려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4학년 때 한국대학생선교회(CCC)의 김준곤 목사를 만나 기독교 신앙을 얻었다. 89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전무이사로 퇴직한 뒤 일본 선교를 준비하던 중 윤남중 새순교회 목사, 한국유리 고(故) 최태섭 회장 등과 함께 한국기아대책을 설립했다.

기아대책 이요셉 이사는 "고인이 미국으로 가시기 전 대북사역 전담법인 섬김의 최부수 회장에게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부탁하셨다"며 "필리핀 구호활동 등 모든 업무는 최 회장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 국민일보와의 마지막 인터뷰(10월 14일자 32면)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척박한 땅에 10만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100만명의 후원자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기아대책에서 은퇴한 뒤에도 "일본이든 어디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이제는 남은 이들이 이어야 할 유지(遺志)가 되었다.

선교 편지

파라과이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기쁜 큰 성탄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의 선교헌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2013년도도 파라과이 선교를 기쁘고 재미있게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

1. 개척한 5개 교회가 연합으로 한인 기도원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성찬예배, 연합찬양, 성경퀴즈대회, 미니 올림픽과 즐거운 수영을 했습니다.

2. 신학대학이 8월 23일 헌당예배를 드리고 지난 11월 26일에 그동안 무인가 신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을 가진 일입니다

3. 기독교 예술학교 유 초 중고등학교 학예회 및 체육과 과학 발표회를 가졌는데 얼마나 많은 배움의 발자취를 많이 보여주었는지 학부형들이 대단히 흐뭇해하고 칭찬과 격려가 너무나 보기 좋았던 일이며 졸업식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 실시하였는데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개척한 5개 교회 중 3개 할렐루야 교회, 아멘교회와 벨렌교회 전교인이 모여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맛있는 과일과 야채로 입을 즐겁게 하였고 성찬예배, 성경퀴즈대회, 각 교회 찬양, 미니 올림픽, 수영대회, 아사도 파티, 수박 과일 파티, 각 교회별 과자 국수 등등 즐거운 하루를 아름다운 교제와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학대학은 11월 26일에 21회 졸업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파라과이에 신학대학을 건립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시면서 복음에 입각한 신학 교육으로 훈련하여 파라과이장로교신학대학 졸업식이 지난 26일 거행되었습니다. 올해 무인가 신학 마지막 졸업식을 갖게 되었고 새해에는 문교부서 학사증을 주는 졸업식을 갖게 됩니다. 이번 졸업식에 대학연맹 총장과 부총장님도 오시고 학무 과장님도 오셨습니다. 준비해 놓은 음식이 170여명의 축하객들과 손님들에게 나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와서 좀 당황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졸업생이 많을텐데 더욱 완벽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컸습니다.

4. 기독교 예술 유 초 중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운 학예회, 체육 및 과학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연합으로 한인 기도원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다

졸업식 예배

졸업식과 종업식

1년간 배운 것을 전시한 작품들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학부형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멋있게 전시를 하였는지 학부형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어떤 엄마는 학교 홍보물을 빨리 많이 달래고 합니다. 자기가 홍보대사 하겠노라고... 선생님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새달력 전도지 3000장을 만들어 배포하며 신나게 전도했습니다.

5. 기독교 예술학교 유치부 28일 중등부 29일 졸업식과 종업식을 가졌습니다.

졸업생중 최우수 학생에게 메달과 금 목걸이를 수여하였고, 모든 학생들에게 메달을 수여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해마다 학교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옮겨가는데 한 학생은 우리 학교가 좋아서 유치원부터 9년간 우리학교에 다녔습니다. 넘넘 감사하지요. 동역자들의 수고에 감사도 드립니다.

기도제목

1. 2013학년도 종강 및 졸업예배를 드렸는데 선한 목자들을 잘 길러내도록. 새해 2014년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도록.

2. 11월에 추수감사주일 특별연합예배 및 세례식 성찬식을 했는데 온 교인들이 더욱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단합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번창되도록

3. 2013년 크리스마스 계절을 맞아 많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찾아 위로 격려하도록(올해 첫 주에 이웃을 위한 크리스마스 저금통을 만들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계절되도록

4. 2014년도 개학을 준비하며 담장공사(5,000$ 정도) 각 교실페인트 책걸상 수리 등등 2달 동안에 잘 마무리 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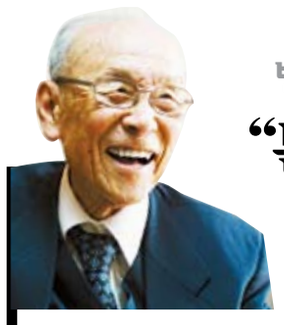
5. 새해 2014년에 신학대학과 기독교 예술학교에 지혜와 영성이 겸비된 좋은 교사들과 많은 전도대상의 학생들이 모집되도록.

6. 김정호 선교사부부 훈련중인 손경수 선교사 김동효 선교사 부부의 자녀들과 건강과 영성을 위하여(남하얀 선교사 셋째 순산하도록...1월중)

7. 신학생이 8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좋은 기둥들이 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이메일:jeonggp@hotmail.com



방지일 칼럼 (19)

"본대로 들은 대로"

만사(萬射)를 한 곳에

유다서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유3) 이를 단번에 주신 교훈이라고 한 바 있다. "일만 화살을 오직 한 곳에" 성도의 본분이라 하겠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를 명심할 것이니 자나 깨나 내 생활의 초점이 주님의 양을 먹이며 기르는데 있다. 목회 실제에 있어서도 예배 인도니 심방이니 성경공부니 카운슬링이니 내 전부를 오직 한 곳에 쏟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약하여 자립할 수 없는지라 목회자가 부업을 가진다. 내 친히 들은 실담이 있다. 최 모 목사는 양봉(養蜂)을 한다. 양토(養兎)를 한다. 다양하게 하는 일이 많았다. 주일예배 시에 강단에 섰는데, 밖을 보니 벌이 분봉하여 나무에 나가 앉았다. 이는 시기를 놓치면 잃어버리니, 할 수 없이 여러분 찬송 몇장 하세요 하고는 그 벌을 받고 와서 계속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도 저도 안되더라는 고백을 들은 바 있다.

옛말에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란 말이 있거니와 주님 말씀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마6:24) 마음이 갈리면 제대로 될 이치가 없다. 나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여 목회면 목회에 초점을 둘 것이니 건강문제에 있어서도 "목회일념"(牧會一念) 이런 글귀대로 전념하기만 하면 거기 건강도 따른다고 본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고후11:29) 이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맡은지라. 누가 약해졌다 하면 그를 좇아간다. 그가 몸이 병들면 또 찾아가야 한다. 언제 밤이고 낮이고 구분이 있겠는가, 그 걷는 걸음이 내 운동에 넘친다. 도리어 더 지칠 수도 있다 어디 시간이 있어 운동시간을 따로 가질 수 있겠는가 찾아가기도 하겠으나 그 하나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디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언제 테니스 시간이요 수영시간, 볼링시간, (골프시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목회에 헌신한 주의 역군은 사무직이 아니므로 시간 따라 사무 보는 일일 수 없다.

독일 같은 국교(國教)에서 일하는 이들은 한 주일에 36-38시간의 업무 보고로 그 사무직을 삼는다. 국가에서 그 생활비가 나온다. 이런 사무직에 임하는 교회를 보면 발전할 수가 없다. 주님의 대역이 아니라 자기 직장의식에서 그 시간만 감당하니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기르는 일이 사무화 직장화 된지라 생명과 생명의 접선이 없게 된다. 있다 하되 그 사무직에서라 그 희미함은 알만 하다. 비둘기 마음은 콩 밭에 있다고! 주님의 역군은 그 마음 그 신경전체를 오직 한 곳에 쏟을 것이라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나지를 않는다.

목사는 과로해서 간경화니 그런 병이 많다고도 한다. 그럴 수도 있겠으나 어느 직에 충성한 사람은 피곤도 하게 된다. 피곤하다고 다 병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나치게 피로가 쌓여 순직하는 분들도 있음을 본다. 목회자로 피로에 쌓여 순직한다면 이는 그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우물을 파야 물을 얻는다는 말도 여기 해당하겠다.

목회성공 운운하는 말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의 일이라 내 성공 여부를 운할 수 없다. 오직 내 전력을 다 할 뿐이다. 일만 화살촉을 한 곳에 쏘아 마땅하다. 초점이 여럿이 된다면 과녁에 맞을 수가 없다. 우리 젊은이들이 사격에서 금메달을 따는 소식을 듣는다. 모든 주의 종들은 힘써 싸우라는 분부는 사격수로 금메달리스트 됨을 의미한 말로 받을 것이다.

나는 은퇴하고도 이때까지는 오히려 더 시간적 여유를 못 가지고 산다 생각하였다. 글 쓰는 일을 이젠 그만하겠다 하고 지내니 시간이 많아졌다. 그처럼 한심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마지막 글을 쓴다고 선교회고록을 탈고했다. 이제는 그만두자 하니 또 끝이 없는 인간 삶인듯 하였다. 무엇이라도 써보아야겠다 하고 써 본다. 기력 있는 동안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 늙었으니 하고 손을 떼면 건강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다 잊어버리고 쓸 수 있는 날까지 써야 할 것만 같다. 부탁하면 말씀도 전하는 일에 아낄 수 없다. 이렇게 삶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창3:19) 이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된다. 바쁘게 땀 흐르도록 일한 사람! 몸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할까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땀 흘리는 사람은 온 몸의 운동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일만 화살을 한 곳에 쏘게 되어있는 목회자들은 이 일에 충실하여 그렇게 삶에 모든 것이 내포된다. 다시 주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모든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더하신다 하셨으니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다는 말씀이시다. 목회자의 건강은 물론 그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

〈1996년, 1권〉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23)939-7323, (F)(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213)215-8523, Fax.(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 오전 9:1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10
(Holywave:영어예배)
(KDC:한국어예배)
주일4부 예배 : 오후 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45
주일3부예배:오전 11:45
주일영어예배:오전 9:45,11:45
새 벽 기도회:오전 6:00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323)466-1234, Fax.(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 은 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새벽5:30(월-금), 6:00(토)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 일 학 교: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비전Acts 1:8 새벽기도: 오전 6:30(토)
중,고,대,청년부: 오후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562)690-9800, Fax.(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새찬양교회

담임목사 : 변윤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byon@gmail.com
Tel.(714)826-0100, Cell.(714)944-9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어)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2부 대 예 배: 오전11:15
주일영어예배: 오후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새생명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한어 2부예배: 오전11:00
성 경 공 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교 육 부: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818)952-2449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아케디아 온누리 소망교회

담임목사 : 조묘숙
주 일 예 배 : 오후 2:00
금요기도회 : 오후 9:00
새 벽 기 도 : 오전 5:30(화-금)
Tel.(626)533-1155
1741 South Baldwin Ave, Arcadia, CA 91007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오후예배: 오후 1:45
금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 오전 11:00
Tel.(818)249-2871, Fax(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
(화-토)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창 대 교 회

담임목사 : 이춘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영어)
중고등부성경공부: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 요 찬 양: 오후 7:30
www.gpc.com
Tel.(909)388-2940, Fax(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15(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선교 편지

아이티

집에 인터넷이 금요일부터 안돼서 소식을 못 드리고, 류 장로님 내외분과 아이티에 왔습니다. 이번 아이티 방문은 저 혼자 오게 되었었는데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던 류정환 장로님 내외분께서 일주일을 남기고 합류하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이른 새벽 서영신 전도사님께서 공항 라이드를 해주셔서 오전 9시 델타로 출발하여 오후 12시 30분 예정보다 거의 30분이나 빨리 아이티에 도착하였습니다. 탁 선교사님과 로사 선교사님의 사랑에 가득찬 공항 픽업과 점심식사로 다시 한 번 힘을 얻었습니다. 매번 지는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이번에도 식사 준비에, 차량에, 쌀 구입에 신경을 잔뜩 써주셨습니다.

탁 선교사님께서 이번에도 미리 쌀과 식료품을 사놓으셔서 따바 고아원과 가브리엘 고아원을 들리기 위해 쌀 스무 포대, 식용유, 설탕, 생선 통조림, 과자 등을 싣고 식사 후 곧장 위슬린이 있는 따바의 House of Hope으로 갔습니다. 이제 숙녀 같은 아홉 살 아가씨가 된 위슬린을 반갑게,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위슬린을 만나고, 고아원을 둘러보고, 쌀과 식품을 내려놓고 오는 길에 유니버설 수퍼마켓에서 사온 초코렛을 주고 위슬린에게는 큰 대니쉬 쿠키 한 통과 생일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옷 두 벌, 샌달 한 켤레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키도 훌쩍 컸지만, 이제는 선물한 과자를 뜯어서 아이들을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바빠서 서운한 마음으로 따바를 떠나 델마에 있는 가브리엘 고아원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맥없는 아이들, 여전히 시끌벅적한 가브리엘 원장 여전히 빈 식량 창고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곳에서 아이들이 소망을 품고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탁 선교사님이 잘 준비를 해주시고 동행해주셔서 제법 시간이 단축되어 예정보다 조금 빠른 오후 4시경에 목적지인 HIM 신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보기 드문 보석과 같은 GAP의 청년들이 기쁨으로 맞아주었습니다.

HIM은 GAP Haiti의 이동렬 목사님께서 필생의 사역으로 시작하신 선교사 신학교입니다. 열 두 명의 신학생을 무상으로 교육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학교로 운영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사흘간 매일 오전에 강의를 합니다.

오후 다섯시쯤에 HIM 센터를 떠나서 GAP 청년들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숙소는 생각보다 시원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인버터로 전기를 돌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현지인 마담이 준비한 식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했습니다. 식사 후 씻고, 쉬고, 여덟시에 찬양과 말씀.... 그 사이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오전 여섯 시에 일어나면 아마 각자 큐티를 하나봅니다. 그 부분은 담당 간사님이 말씀을 안하셔서...

류 장로님 내외분은 오전에 아이티 사역지와 진흙 쿠키 만드는 것과 마더 데레사 아동병원을 돌아보실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탁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오전에 강의, 오후에 세 개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운 쌀과 생선통조림, 기름, 설탕, 옥수수, 과자 등을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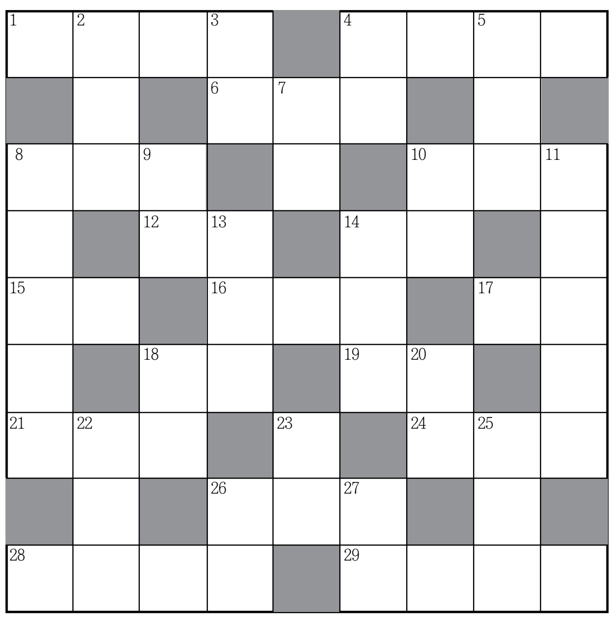
여전히 이 일에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꿈을 지켜주시는 탁 선교사님 내외분께 감사드리고 GAP의 청년과 이 청년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준 이동렬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 동행하신 류 장로님 내외분께 감사드리고 기도로 아이티에 저를 보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뿌리깊은교회 성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드릴 것이 감사 밖에 없음을 또 감사합니다.

이 저녁 이 아름다운 청년들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티에서
조항석 목사 드림

십자말 • Cross Word (21)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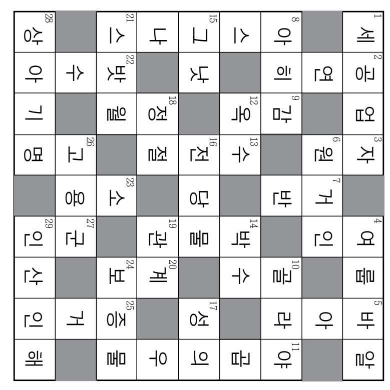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작은 물건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계18:22).
4. 사사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훼파한 후 그 부친이 지어준 별명(삿6:32).
6. 그 지방에서 오래 전부터 살던 사람(창36:20).
8. 사반의 아들로, 예레미야를 보호함(렘26:24).
10. 거짓 선지자 아합의 아버지(렘29:21).
12. 거룩한 예루살렘성의 세 번째 기초석(계21:19).
14. 남자 무당(출7:11).
15.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인데 노바가 점령했기 때문에 노바라고 고쳤다(민32:42).
16. 돈을 빌기 위해 전당잡힌 물건(겔18:7).
17. 거룩한 제사장이나 혹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의복(출29:29).
18. 여자의 곧은 절개(딤전2:9).
19. 둘 이상이 서로 걸림(행8:21).
21. 히브리 달력에 있어서 11월(슥1:7).
24. 보증이 되는 물건(욥17:3).
26. 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렘46:21).
28. 코끼리 이빨로 만든 그릇(계18:12).

<세로 푸는 열쇠>

2. 괜스레… 괜히(사49:4).
3. 스스로 하고 싶어 바람. 스스로 지원함(출35:21).
4. 성년이 된 여자(욥14:1).
5. 사하라임의 아내(대상8:8).
7. 거의(눅10:30).
8. 야벳의 자손 고멜의 아들(대상1:6).
9. 형무소의 그전 이름. 교도소(느12:39).
10. 뼈의 중심부인 골강에 가득 차 있는 결체질의 물질(히4:12).
11. 예수께서 사마리아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셨다. 그 우물의 이름(요4:6).
13. 우상으로 더럽힌 예루살렘 성전을 매코비가 다시 중수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요10:22).
14. 여러 사물과 그에 관한 참고가 될만한 물건을 전시하는 집(상식).
18. 일년 중의 첫째 달(창8:13).
20. 집안의 혈통이나 계통을 적은 책(창5:1).
22.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이며 솔로몬의 모친(대상3:5).
23. 쓰일 데. 쓰이는 바(출35:28).
25.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사람(렘29:23).
26. 고상하고 현명함(사32:8).
27. 육·해·공군 장교. 사병의 총칭(민31:53).

십자말 정답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718)639-3021, Fax.(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야예배: 오후 8:45
Tel.(718)482-7788, Cell.(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732)310-0022(교회), Fax.(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친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303)-422-6950, Fax.(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ㄴ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410)337-9448, 882-0181, Fax.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토,주일)
Tel.(410)203-0516, Fax.(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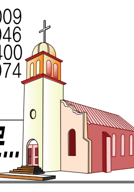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열린)
Tel.(253)535-6207, 531-8424
Fax.(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밤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253)536-6675, Fax.(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젊은이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az.com
Tel.(480)726-0191, Fax.(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9. 사모의 인격 가꾸기(1)

‘나’에 대한 확실한 자아인식 있어야 사모 사역 수행
성경으로 쪼개지면 인간/하나님과 성숙한 관계 가져

사모의 인격은 다른 보통 여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라는 호칭 그 자체는 사모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모는 이래야 한다 사모는 저래야 한다 사모이기에 다른 여성들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 혹은 미혼녀들 중에 좀 특별히 열심이고 유난히 착하기라도 하면 “사모감이야” “그럼 그렇지” “어쩐지 달라” 이런 말들을 흔히 듣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모라면 적어도 이래야지 하는 기준이 보이지 않게 서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실제로는 사모들에게 많은 눌림을 안겨 주며 심지어는 헤어 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깊이 빠져 들게도 됩니다.

인격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많은 은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인격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 열매는 뻔한 것입니다. 요즘 들어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도 크리스천의 일상생활 속에 불신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지탄을 받는 뉴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말이요 불신자들 자신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천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직자들의 신용이 땅에 떨어져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명에 투철할수록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조해리창’(Johari Window-Joseph Luft와 Harry Ingham이 자기 개방과 피드백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해 개발한 개념: 편집자주)이라는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자아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것으로 평가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사모들은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성도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긴장을 합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자녀들까지도 거룩한 척하지 않으면 구설수에 오르기 쉽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모들의 스트레스는 심한 병까지 걸리게도 되지요. 한국에 가면 십계명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에게 들키지 말찌어다” 이것을 위해 안간힘을 쓰다 지치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셋째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거울을 드려다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 지적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모들에게는 이런 경우 심한 충격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얼토당토한 말이 나돌게라도 되면 사모는 억울한 감정에 밤잠을 설치게도 됩니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당나귀라고 부르면 무시해버려라 그러나 두 사람이 당신을 당나귀라고 부르면 귀를 만져보라 만약에 세 사람이 당신을 당나귀라고 부른다면 등에 안장을 차라”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모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온갖 구설수에 오를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습관 중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다가도 가장 만만한 사모에게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씌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곤란한 일을 당해서 교회를 떠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도 가장 만만한 사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 후유증으로 사모는 밤잠을 설치며 심하게는 우울증까지 걸립니다. 이런 저런 상처를 받은 사모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은 어디로 가 버리고 성도들 앞에 또 다른 모습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야 합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래도 제법 순수하고 정직하고 해맑은 얼굴로 웃음이 가득차여 있었지만 오랜 세월 시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과 겉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희로애락의 표현에 많은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습다고 마냥 웃어도 안되고 때로는 본의 아닌 거짓말도 해야 하는 자리가 사모의 자리인가 봅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온갖 상처로 인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생겨진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과는 달리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된 사모가 어느 날 자신을 들여다 볼 때 한심해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녀시절엔 안 그랬는데...갱년기라도 될라치면 심한 우울증으로 모든 의욕까지 잃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남편을 가까이 하는 여성도들에 대해 민감하여 마땅히 사랑해야 할 여성도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기라도 하면 자신을 향한 심한 채찍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남편을 향한 정죄와 비판의 실력만 한없이 늘어갈 뿐, 용서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사모들은 한없이 사모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필자의 경우에 20여년의 사역을 마치는 그 날. 부푼 꿈을 안고 미국에 도착한지 1년 된 어느 날, 하나님은 남편을 불러가셨습니다. 그 날 이후였습니다. 사모의 길을 걸어온 길 20년이 훨씬 넘어선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홀사모가 되던 그 날을 생각해봅니다. 까마득한 장래를 어찌 견뎌야 할꼬 고민하며 애타하다가 마침내 병이 들어 쓰러지던 그 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멍해집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실 앞에 서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금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던 그 날, 그 앞에 쓰러졌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해 왔었는데...남달리 충성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등 사모가 되려고 달려왔었는데...주님은 저의 영안을 열어서 저의 인격에 병든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성도들과 남편목사님을 지적하는 형사병, 심한 상처로 찌들어 있으면서도 증세를 모르는 감각 없는 문둥병,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는 척병 등등 온갖 인격의 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주님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통곡과 회개의 울음소리가 기도원의 적막을 깨뜨리고 새로운 충성을 각오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모라고 사랑해주셨던 성도들 앞에 무어라고 인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새로운 찬송을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16면으로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복 있는 사람(시1:1)

오늘 본문 시편 전체의 서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결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쁜 일을 안해서 복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악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악을 따르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매우 복이 넘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꾀를 생각지도 않고 좇지않고 죄악된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떠한 오만한 자와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화 복 있는 사람(시1:2)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한다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기쁨을 찾고 말씀 안에서 나의 즐거움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모두가 믿어지고 마음속에서 계속 감동으로 되새김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하다”는 뜻은 “입속으로 말하다, 마음으로 이야기하다, 되새김질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입속으로 말하고 반복해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있는 사람이 돼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돼서 그것이 곧 기도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수 복 있는 사람(시1:3)

히브리원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척박한 땅에 심겨있었던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심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예수님께 접붙힘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옮겨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싹이 나고 자랄 때는, 그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또한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시냇가로 옮겨 심었더니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척박한 땅에서 옮겨 심으셔서 예수님께 접붙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 복 있는 사람(시1:3-4)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 붙어있기에 풍성한 과실을 맺고 하는 일마다 결국은 잘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주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헛된 삶을 살다가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시절을 좇아 많은 과실을 맺어서 오고가는 짐승들을 먹게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므로 생명을 살리고 남을 위해 기도해주는 일, 도와주는 삶, 결국 풍성한 과실을 맺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줄 것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께로 옮겨 심어주셔서 이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의 삶은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계속됩니다.

금 복 있는 사람(시1:4-6)

“인정하고 계신다”(6a)는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끝까지 악을 막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가 우리를 끝까지 악에서 구하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서 인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을 끝까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개와 어둠속에 싸여있을지라도 설령 그 길이 재난의 구름과 폭풍우 가운데 있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성도는 어떠한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토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시2:1-3)

시2편은 아주 유명한 메시야의 시입니다. 먼저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헛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함은 이 세상의 악한 습성입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본문을 인용했습니다(행4:25이하). 시편기자는 피조물들이 서로 힘을 합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을 벗어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줄 알지만 마치 발뒷꿈치로 송곳을 차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하는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요! 진정 더욱더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Tel.(062)523-9419, Fax.(062)522-4834
500-170 광고광역시 북구 운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03)3208-8491~5, Fax.(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82)2-440-9000, Fax.(9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02)2645-6567~9, Fax.(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82)51-740-4500, 4556~8, Fax.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주일학교 영어교재 펴낸 홍그레이스 선교사

'Booyoung & Sea Jurtle's Adventure'

"우리 자녀들, 학교교육과 교회교육 가운데 혼돈 중에 있어"

세계를 향해 나갈 남미출신선교사들을 배출하고픈 소명을 안고 볼리비아로 향했던 홍석종, 그레이스홍 선교사 부부. 지난 6년 동안 볼리비아에서 학교사역과 코차밤바 지역(생명의샘교회/ 알토 코차밤바 가나안교회/ 알토 빠가도르교회/새생명교회/학교내 가나안교회), 짜빠레 지역(끄루세 안디노교회) 등 6개 교회사역과 그곳 현지인들을 위한 약품 조달과 상담사역 등으로 헌신해 왔다.

그들은 그곳에서 생활하며 또 하나 절실하게 느낀 것이 치유사역이었다. 약품을 공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의료 선교팀들을 매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생각한 것이 바로 침술과 한의다. 특별한 의료장비가 없어도 간단하게 침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한의학이 선교현장에 가장 필요한 의료선교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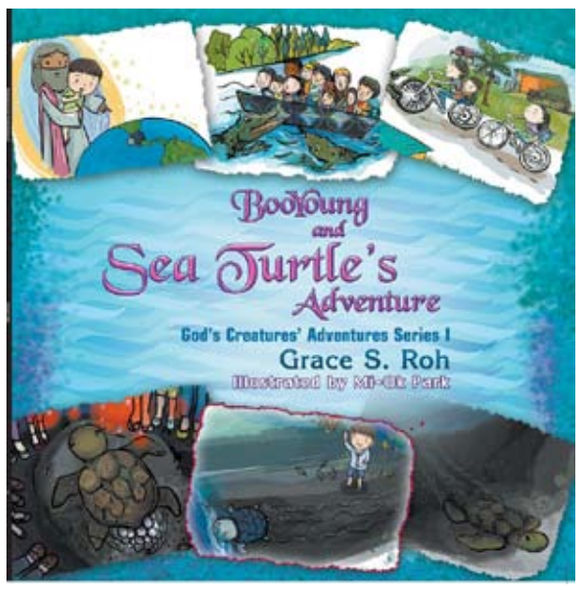
홍선교사 부부는 2기 선교사역을 마치고 LA로 돌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우스베이 한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한의학 공부에 임했다. 이 학교를 마치고 다시 볼리비아로 돌아가 그곳 현지인들에게도 이 침술을 전수하고 선교사를 배출할 비전을 가졌다. 이슬람권 선교사 300명 파송을 위해 한의과 대학과 한의병원, 선교사 훈련센터를 세우기 위한 꿈을 품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학문에 전념하고 있다.

이들 선교사부부는 남다른 아픔을 가슴에 안고 있다. 선교지에 들어가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다.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한순간 극한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볼리비아 어린이를 입양하게 하셨고 그 입양아들(부선)을 보며 상처를 회복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지금은 세 아이를 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홍석종 선교사를 보필하며 함께 사역하고 있는 아내 그레이스홍 선교사. 그레이스 선교사는 많이 알려진 인재다. 각 교회 교육 세미나는 물론 코스타((Korean National Summer Conference) 강사로도 활동했다.

이처럼 어린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그레이스 선교사는 미주 지역 교회마다 주일학교 교재에 대한 어려움을 체감해 영어로 된 주일학교 교재를 펴냈다.

창조시각으로 사물과 삶 보는 습관 갖도록...자아존재감 확인



"지금은 어린이들이 학교교육과 교회교육 가운데 많이 혼돈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 진화론, 창조론 문제는 아이들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 놓고 있는 가장 큰 주제들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본격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의 혼돈은 이제 극에 달한 시기이지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진화론과 창조론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이론이냐고 묻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성경의 바른 가르침과 믿음을 전수해야 한다고 믿어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라고 출간 동기를 설명했다.

본서는 6장으로 되어있고 매 장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질문들과 답변이 있어 신앙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시각으로 모든 사물과 삶을 보는 습관을 갖도록 도우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국 어린이들처럼, 백인이나 흑인아이들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운데서 존재감을 확인시키고자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다음은 그레이스홍이 발간한 'Booyoung & Sea Jurtle's Adventure' 중에서 발췌한 내용.

부영이는 장난꾸러기이지만 질문과 호기심이 많은 5살짜리 꼬마 어린이입니다. 부영이는 아빠 엄마와 함께 볼리비아에 선교사로 가기위해 코스타리카에서 언어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 엄마가 다니는 언어학교에서 모든 선교사 가족들을 초청하여 코스타리카의 동쪽 바닷가인 "또르뚜게로"라는 곳으로 바다 거북이를 보러가게 되었어요.

밤이 되어 엄마 거북이들이 알을 낳는 모습을 보러 가이드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바닷가로 나갔어요. 놀라운 것은 알을 낳는 엄마 거북이들은 예전에 그곳에서 애기 거북이로 태어나 바다로 떠났고 아주 오랜 시간 후에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알을 낳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 어두운 밤에 모든 야생동물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힘들게 해변가로 와서 80개에서 120개까지나 되는 많은 알을 낳는다고 했어요.

처음 알을 낳을 때는 그 많은 알들이 서로 부딪쳐도 깨지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상태인데 점점 딱딱한 껍질로 변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 거북이는 힘이 들어도 끝까지 알을 낳고 또 알들이 안전하게 부화될 수 있도록 모래흙으로 다시 꼼꼼히 덮은 다음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바다 속으로 갔어요. 그것을 보면서 부영이는 하나님도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머물러 있었을 때 알에서 깨어나는 베이비 거북이들을 보러 부영이는 엄마와 함께 바닷가에 나갔어요. 베이비 거북이는 해가 뜨기 전에 바닷가로 가야한데요. 해가 뜨면 베이비들은 금방 말라버리고 또는 다른 사나운 동물들에게 쉽게 잡아먹히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지혜는 누가 가르쳐주었을까요? 부영이는 여러 베이비 거북이들이 줄을 지어 바다 속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략〉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능력을 보게 된 부영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빠와 엄마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는 중에 아빠는 부영이에게 더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을 설명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신비한 능력이 있는 동물들보다도 더욱 귀중한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지요. 이런 신비함과 사랑으로 가득찬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요...."

첫 번째 교재 거북이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 발행될 교재의 내용은 '아주 얄미운 새'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다음은 펭귄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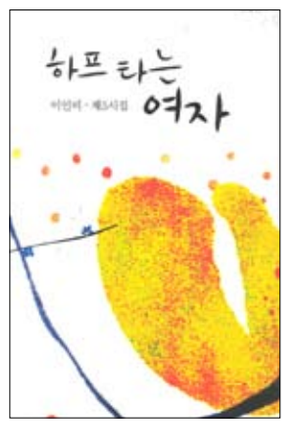
책 구입에 관한 문의는 gracesroh@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새책소개

"하프타는 여자"

저자 이인미



지상에 있는 자연만물은 / 단 한분을 위한 비유이며 /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 단 하나의 샛별을 호위하는 배경 / 땅은 하늘의 그림자 / 세계의 모든 말은 / 단 한 나라의 말을 배우기 위한/ 외국어며 / 이 세상 모든 시들은 / 시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발짓 / 그대 평생 찾아 다니던 그 사랑은 / 단 한 분의 눈빛 속에서 만나리

LA 문화선교원 '시전' 대표인

우주 건축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담아

이인미 전도사의 다섯 번째 시집 '하프타는 여자'(발행처 시시울)가 발간됐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이인미 시인.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등을 만들려 동대문 철물 상가를 뒤지며 얼기설기 엮어 만든 모조 다이아몬드 불빛으로 거실을 밝힐 때 창조의 기쁨을 알았다"는 이인미 시인은 "낯선 미국 땅에 와 13년을 살다보니 언제 떠나도 아쉬움 없는 살림살이, 성경책 한권만이 닳아버린 시인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런 까닭의 그의 싯귀 속에는 우주 건축사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글귀마다 배여 있다.

본 시집은 1. 자연의 서, 2. 거룩한 식사, 3. 그 사랑밖에, 4. 어린 피아니스트에게로 크게 나뉘어 총 65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이인미 시인은 인천출생으로 월드미션대학을 졸업하고 문학지 '자유문학, '예술세계' 시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제16회 에피토도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성자 기자〉

〈5면에서 계속〉

신앙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이슈를 포함한 모든 일에 대하여 성경적인 견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적인 원리에 벗어나는 정책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성경에 근거한 지적과 말씀의 가감 없는 선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이념과 갈등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발언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의 본질을 오해한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주장함은 득보다 실이 될 경우가 더 많다.

우리는 교회의 정치참여의 두 극단 사이에서 매 순간마다 이슈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할 일을 찾아 나감이 필요하다.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15면에서 계속〉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중한 죄짐을 벗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는 사별의 고통을 이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알게 모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또는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을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 보면 어느 덧 무의식 세계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식하지 못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에 지대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이런 부분까지도 터치하셔서 치료해주시니 오늘도 그 말씀 앞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fh KAFHI

국제기아대책(KAFHI)은
긴급구호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필리핀 사이클론 피해가족과 이재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KAFHI는 2002년 설립이후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의 쓰나미 피해, 플로리다 허리케인, 미얀마 태풍, 중국 쓰촨성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아이티 대지진등...지구촌 이웃들에게 발생한 고난의 현장에 신속히 달려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주님의 사랑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망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 앞에 좌절하는 형제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울부짖는 어린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힘없는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목마른 나그네가 그렇게 갈망하던 생수 한 그릇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 중에 잠시 쉼을 주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 끼의 양식을 구하는 이에게 전해준 영생의 양식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헌금과 성탄절의 사랑을
필리핀 태풍 피해자들과 나누어 주십시요.

지금 지구촌 한 편, 필리핀에 역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수만명의 사상자와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먹을 물, 전염병 예방, 시신수습, 구급의료품과 식량이 필요합니다.

긴급구호헌금 문의 및 보낼곳
Pay to the order KAFHI
Memo 필리핀 긴급구호
주소: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문의: 847-296-4555, 703-473-4696 (정승호 목사)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KAFHI)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www.fh.org, kafhi@fh.org, shchung@fh.org, 847-296-4555, 703-473-4696

명예이사장 및 설립자 이원상 목사
이 사 장 배현찬 목사 부이사장 이종관 목사 노진준 목사 이순근 목사 최훈석 집사
이 사 권석찬 김광태 김사무엘 김세웅 김승의 노승환 신구용 신진웅 안인권 이계준 이병완 이애실 이영섭 이현혜 임철성 장원일 장재욱 정세훈 조용수 진용태 차기영 홍선희
회 장 김형균 목사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 훈련원장 백신종 선교사 CFCT 간사 김은실 이 에스더 코디네이터 노희준 장로 신구용 장로

국제기아대책기구로 알려진 FHI는 Food for the Hungry 의 한글번역입니다. Food for the Hungry는 설립자 래리워드 박사가 성경 시편 146:7, "food to the hungry" 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입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FHI)의 미국 및 국제적 영문명칭은 Food for the Hungry/FHI 이며 다른 영문 명칭은 국제기아대책과 관련이 없습니다.